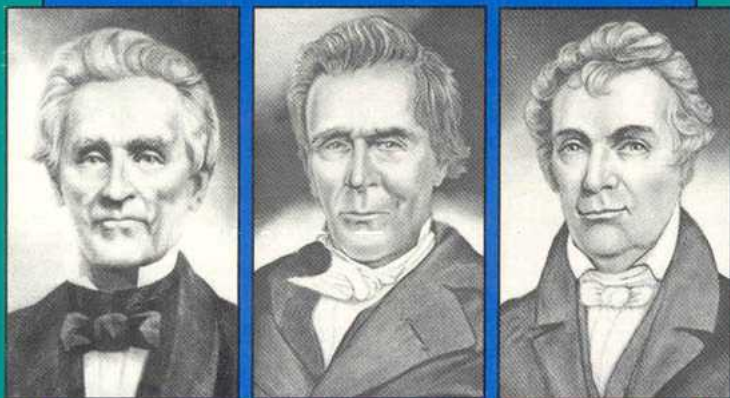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

환원운동사13강



Morris Womack

환원 운동사 13강

조 동 호 번역

그리스도교회연구소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

Morris Womack
College Press Publishing Company, Joplin, Missouri

Dong Ho Cho, Trans.

Christian Church Studies, 2000, 2009

258-15 Umsary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서문

Preface

이들 13개의 강의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한 전통유산을 살펴 보려는 노력을 대표한다. 환원운동은 필자가 어른이 된 이후 내내 관심분야였고, 수많은 설교와 성경학교 강의주제였다.

이 일련의 강의들은 1960년대 초에 필자에 의해 처음 책으로 출판되었고, 나중에 R. B. 스위트 출판사(R. B. Sweet Publishing Co., Austin, Texas)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그 출판사가 “생명의 말씀” 강의 시리즈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였을 때, 저작권 승인이 필자에게 주어졌다.

칼리지 출판사(College Press)는 매우 고맙게도 많은 강의들이 추가로 첨가된 이들 13개의 강의들을 다시 책으로 출판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전 판에는 환원운동에 관한 강의가 단지 세 개만 있었다. 그러나 이 시리즈에서는 대부분의 강의들이 우리의 역사인 환원운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필자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특정한 준거의 틀에서 명백하게 나온다. 필자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에서 40년 이상 설교하였다.¹⁾ 그러나 필자는 버틀러 대학교 신학대학(Butler University School of Religion)을 다녔고, 환원운동의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도 또한 매우 친숙하다.

이들 강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이 글들을 기도로써 읽게 될 독자들을 위한 것이다. 독자들은 열린 마음

1) 역자 주: Churches of Christ는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식 명칭이다.

으로 읽고,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을 오직 따라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필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얼 웨스트(Earl West)는 필자가 가장 아끼는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수년간 줄곧 필자를 격려했다. 그의 『사도전승 탐구』(*Search for the Ancient Order*)에 관한 발전 가능한 업적들은 필자의 지속적인 벗이었다. 필자는 그의 우정과 격려에 대해서 그에게 감사한다.

필자는 특별히 필자의 딸인 리엔 위맥(Leanne Womack)에게 필사본의 최종 사본을 편집하는데 많은 제안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한다. 물론 모든 오류들은 필자의 것이며, 그것들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래리 킨(Larry Keene) 박사는 몇 개의 장들을 읽고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간 제안들을 해주었는데 도움이 매우 컸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책을 축복해주시기를 필자는 간절하게 빈다.

모리스 M. 위맥(Morris M. Womack)
1988년 3월 25일

차례

서문	3
제1강 오순절에서 순례자까지	7
제2강 신대륙의 기독교	19
제3강 미국의 교파	29
제4강 초기 탐색	41
제5강 발톤 왈렌 스톤	51
제6강 토마스 캠벨	61
제7강 알렉산더 캠벨	71
제8강 지도력의 확대	81
제9강 진보와 퇴보	95
제10강 그리스도의 교회들	105
제11강 독립 그리스도인 교회들	117
제12강 그리스도의 제자들	127
제13강 우리는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137
역자후기	149

제1강

오순절에서 순례자까지

From Pentecost to Pilgrim

교회사 연구를 통해서, 독자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 발전하였으며, 세계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볼 수 있다. 그러려면 네 가지 분명하고 두드러진 물음에 답을 얻어야 하는데, 첫째, 어떻게 교회는 막강한 지구촌에서 시작되어 발전하였는가; 둘째, 어떻게 초대교회는 본래의 패턴에서 떨어져 나갔는가; 셋째, 어떻게 종교개혁은 시작되어 발전하였는가; 넷째, 어떻게 가톨릭교회는 반-종교개혁으로 대응하였는가를 포함한다.

교회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오래도록 갖지 않는다는 것을 곧바로 보여준다. 그러한 예들은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랬고, 사사 시대와 열왕기시대에도 그랬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그분의 길을 떠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결코 한 세대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남아있도록 대비해야 할 세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강의에서 우리는 교회의 영구성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우리들은 교회와 교회의 영구성에 관한 몇 개의 진술들을 구약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교회사에 있어서 오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교회의 영원성에 관한 가르침들을 신약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들로 가득한 이 땅에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찾아보고자 한다.

구약성경의 약속들

구약성경에는 교회에 관한 성구들이나 예언들이 많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다. 때때로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길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급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데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2-3).¹⁾

상기한 말씀은 일반적으로 메시아의 출현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레미야 또한 “이스라엘의 집과의 새로운 계약”을 예언하였다(렘 31:31-34). 이 새로운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다시 다니엘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왕국”을 예언하였다(단 2:44이하). 이들 성구들의 하나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있을 새로운 통치의 출현을 예언한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보다 훨씬 더 분명하다. 신약성경 속에 교회가 예언되어 있다. 예수는 마태복음 16장 18-19절에서 약속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께서 “교회 건축”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교회의 영구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는 중요치 않다. 예수께서는 음부의 권세

1) 고딕체 강조는 필자의 것임.

가 이기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교회는 “흔들 수 없는 왕국”이다(히 12:28을 보시오).

우리들은 예수의 왕국인 교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예수 자신의 예언과 약속을 모두 갖고 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신약성경교회의 환원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그 패턴을 갖고만 있다면,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오순절의 충격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요 축제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 날은 유월절 후²⁾ 50일 혹은 일곱 주에 발생하였으며, 종종 “칠칠절”(Feast of Weeks)로 언급된다. “이 날은 첫 열매들의 처음 익은 단을 흔들어 바치는 때에 시작되었고(레 23:11), 이스라엘이 지킨 두 번의 토지 축제들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기술되며, 보리추수의 종결을 의미하였다(레 23:15-16, 신 16:9-10).”³⁾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뒤따라 일어난 유월절 축제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모였고, 이 무리가 오순절 축제 때까지 남아있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기로 선택했던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

따라서 오순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그 날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주셨던 약속의 응답으로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날은 “성령시대”(Spirit Age)가 시작된 날이었다(요 14:26; 행 1:4-8; 2:1이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그 날에 발생하였다.

예수께서 사망하셨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온전하게 세상에 처음 주어진 것은 오순절 날이었다. 이 일이 발생하

2) 역자 주: 유월절 안식일 다음날부터 세어서 50일째 날(레 23:15-16: (레 23:15-18: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3) Henry E. Dosker, "Pentecost,"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ed James Orr(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5), IV, p. 2318.

기까지는 복음이 온전할 수 없었다(고전 15:1이하 비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처음 선포되었던 날은 오순절 날이었다. 그리고 교회는 오순절 날에 실제로 출범하였다.

교회의 영원성

필자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분별 있는 생각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어떻게 이것이 진실할 수 있는지, 측량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신약성경은 이 진리를 단언하는 진술들로 가득하다.

당신의 아들의 강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폭넓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위대한 서신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4-10).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엡 1:22-23)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이어서 진술한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드러내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바울은 또 예수께서 “때가 차서” 역사 속으로 정확한 시기에 오셨다고 말한다(갈 4:4). 다른 어떤 시간도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렇게 적절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억측하는 것처럼, 재고(再考)의 부산물이 아니었다. 교회는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으로 태어난 피조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일부분이다. 몇몇 전 천년설 주창자들은⁴⁾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으나, 유대나라가 그분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분은 왕국대신에 교회를 남겼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교회”와 “왕국”은 마태복음 16장 18-19절에서 동일한 것으로 언급한다.

예수께서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고 약속하신 것을 상기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설 (will stand)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사 55:8-11)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깨닫는 것은 커다란 위로의 원천이다. 남겨진 것은 “노획물을 청구하는 것”이다. 계시록을 읽어 보라. 비록 우리가 계시록의 모든 상징들의 의미에 철저히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승리”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흔들 수 없는 왕국인 교회에 접근한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의 흔들 수 없는 왕국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말한 “흔들 수 없는 왕국”에 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4) 역자 주: 정확히는 시대구분론 주창자들을 말함.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히 12:22-23)....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히 12:28).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요 개념들, 즉 순례자들 대(對) 시민들, 역사상의 “환원”의 표식들 그리고 환원 개념을 주목하기 바란다.

순례자들 대(對) 시민들

먼 옛날, 북아프리카 히포의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The City of God)에서 “세속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를 비교하였다. 그의 주장을 크게 압축하여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도시는 영원한 왕국, 즉 교회로 상징되는 영원한 도시인 반면, 세속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임시적이며 미완성의 세상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시민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순례자들 일뿐이다. 우리는 여기에 지속적인 거처를 갖고 있지 않다. 이 개념에 대한 성구들은 신약성경에 얼마든지 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적고 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고후 5:1-2)고 적고 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엡 2:19-20).

앞에서 인용한 몇 개의 성구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우리는 순례자

들이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아 이 사실을 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 미치기까지 종종 우리들은 이 진리의 충격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이 임시적이라는 인식으로 지상의 “업무”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셋째, 이 삶은 단지 “실험장”이다. 이 삶 속에서 여기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선물을 청구할 수 있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다.

역사상의 환원의 표식들

교회는 예수께서 주셨던 원래의 모습에서 곧 떠났고, 조직과 삶과 교리에서 왜곡된 많은 모습들이 교회에 스며들었다. 한 몸으로써 가톨릭교회와 자치적인 많은 개교회들 모두가 개혁을 시도하였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거론되었고, 위클리프, 후스, 루터 칼뱅, 츠빙글리는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이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자체의 반-종교개혁운동을 통해서 스며든 잘못들을 고치려 하였다. 사제들 사이에서의 도덕성은 때때로 부끄러운 것이 되었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교리들이 장려되었다. 복잡한 모습의 조직은 중세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교회를 특징지었다.

종교개혁(reformation)과 환원(restoration). 본서는 “개혁”과 구별해서 “환원” 운동으로 알려져 온 것을 조사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비록 루터 이전에도 수많은 교회지도자들이 수많은 개혁활동들을 시동시켜왔었지만, 일반적으로 마르틴 루터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종교개혁운동(the Reformation Movement)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비록 캠벨과 스톤은 그들이 몸담았던 운동을 “개혁”이라고 불렀지

만, 그것은 대부분의 교회역사가들에 의해서 “환원운동”으로 간주되기
 에 이르렀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루터와 칼뱅 그리고 다른 개
 혁가들은 그들의 개혁을 기존교회를 “고치고 정화”하는 것으로 보았
 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 강의들을 통해서 연구하려는 운동을 이끌었
 던 지도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초대교회로 눈을 돌렸다. 그
 들은 전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신약성경으로 복귀하는데서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보았다.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⁵⁾가 그들의 의도들을 기
 술하는 자주 반복되는 슬로건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강의들에서 “환원운동”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분의 길을 찾기 위해서 신약성경으로 복귀하려는 그 시도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캠벨과 스톤 그리고 다른 개혁가들이 착수했던 것과 동일한 일을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있어왔다. 몬타누스주의
 (Montanists)⁶⁾는 교회를 정화하려고 착수하였다. 알비파(Albigenses)⁷⁾
 와 발덴스파(Waldenses),⁸⁾ 그리고 재침례파(Anabaptists)⁹⁾들은 기존

5) 역자 주: 이 슬로건이 개혁주의 전통, 특히, 칼뱅에게서 나왔다는 주장이 있
 으며, 주로 “진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Churches of
 Christ)에서 즐겨 쓰고 있다.

6) 역자 주: 몬타누스주의는 2세기경 소아시아 프리기아 지방에서 번성했던 개
 혁운동으로써 히에라폴리스에서 몬타누스가 일으킨 운동이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그들의 예언들이 사도들이 선포한 교리들을 대신하고 이행한다고 믿었고, 무아지경
 상태에서의 예언을 권장하였으며, 은혜에서 떨어져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재차 구원받
 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죄의 회피와 교회의 징계 및 재혼금지과 정절을
 강조하였다.

7) 역자 주: 알비파는 9세기경 발칸반도와 그 주변 섬에서 형성되었고, 중세 유
 럽 여러 지역에서 발흥하다가 14~15세기경 소멸된 카타리파로 불리기도 한다. 카타
 리파는 자신들을 ‘순결한 사람’(Katharoi)으로 불렀다. 알비파는 12세기경 프랑스 남
 부지역에서 활동하던 종파로써 그들이 남긴 자료들이 드문데다가 내용이 부실하고
 반대파들의 자료들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
 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들이 가톨릭교회와 대립하여 반(反)성직자파
 를 결성하고 당시 성직자들의 부패를 끊임없이 비판했다는 점이다.

8) 역자 주: 프랑스 리옹의 발두스(Petrus Waldus, ?~1217)는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청빈을 실천하였으며, 교황권위의 부정, 연옥의 부정, 평신도에 의한 사죄(赦罪)
 의 인정, 죄에 빠진 사제가 거행한 미사의 성사성(聖事性) 등을 부정한 개혁파였다.

9) 역자 주: 재침례자들은 유아세례, 이단자에게 받은 세례, 박해 때 배교했던

교회들을 개혁하려 하기보다는 교회가 가진 본래의 순결성으로 돌아가는데 전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지면관계상 신약성경 기독교를 회복시키려했던 모든 운동들을 낱낱이 기술할 수는 없지만, 알렉산더 캠벨은 그의 토론들에서 여러 세기들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패턴을 따르려고 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환원”의 개념

그러므로 환원운동은 신약성경 기독교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착수되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운동의 초기 지도자들은 이 운동이 얼마나 커질지 그 범위를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 본래의 활동들이 갖게 될 영향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19-20세기 기독교 연구에 의하면, 환원운동은 이 운동의 모든 분파들(Disciples of Christ,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토착적인 종교운동이었다는 것이다. 이들 그룹들에는 중앙 교회본부들이나 중앙 “홍보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운동의 수적 크기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기는 하나 이 모든 그룹들에 속한 교인들의 수가 3~4백만 명을 넘는 것이 분명하다.

과거 한 세기 반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주목하게 된다.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에 관해서 듣고 수용했던 추종자들이 초창기에 쇄도하였다. 이미 주목했듯이, 그것은 19-20세기에 가장 빠른 성장운동이었다. 둘째, 그 운동은 초기에 기세를 장악하였지만 분열로 인해서 그 힘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운동의 세 분파 모두에서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그 운동을 특징짓게 되었다. 셋째, 초기에 성장이 쇄도한 후 그 운동의 신약성경 기독교 정신의 환원이 종종 “교리의 순결”을 위해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것은 교리 그 자체의 분야에서보다는

성직자에게 받은 세례 등을 부정하였고, 스스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침례(believer's baptism)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성서의 권위회복을 강조하였고, 신약성서 교회로의 환원을 역설하였다.

종종 견해의 분야에서 더욱 심했다. 성만찬 때 한 컵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컵들을 사용한다거나 신학대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을 고용하는 문제들이 문자적으로 그 운동을 분열시켰다. 과거 수년 동안 분열들은 매우 극화되어서 한 그룹이 또 다른 그룹과 종종 “말하지” 않게도 되었다. 이것은 그 그룹들의 실제적 성장을 종종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신약성경 기독교의 원칙들에 우리의 삶을 바쳤던 우리 모두는 환원운동 내의 “유감스런 상태의 일들” 때문에 비탄에 잠기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환원운동을 택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그러나 필자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계속해서 다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최근에 필자의 절친한 친구가 “우리들의 운동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말에 대답하기를, “만약 우리가 환원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에게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일찍 주목하였다(이사야 55장 8-11절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더 크게 강조하는 것에 고무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들 강의들을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그들 자신들을 헌신하기를 바란다.

결론

이 첫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침묵하셨던 수세기 동안에 계획하셨다는 것을 배웠다. 교회는 영원하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성취를 위해서 교회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신약성경 기독교의 환원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개혁과 환원의 개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개혁가들은 기존의 교회를 “고치거나” 정화하려고 하였고, 환원운동은 모든 기독교 세기들 배후에 있는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우리가 보아온 대로 이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오래도록 간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결코 한 세대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인간의 개념들 위로 일어나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다.

토의 주제들

1.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은 왕국 즉 교회의 도래를 준비하셨는가?
2. 오순절 날은 오늘날의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3.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께서 교회에 관하여 하신 말씀의 충격을 논하시오.
4. “세상의 시민들” 대(對) “왕국의 시민들”을 논하시오.
5. “환원”과 “개혁”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6. “환원”의 개념을 논하고, 어떻게 이 개념이 그리스도를 위한 당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논하시오.

제2장

신대륙의 기독교

Christianity in the New World

신대륙의 발견과 정착으로 교회에도 많은 변화들(adaptations)이 있었다. 정착자들은 그들이 이민해 올 때,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그들이 믿고 있던 종교를 가져왔다. 모든 분야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들은 새로운 변화들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아메리카 신대륙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대륙의 기독교는 네다섯 가지 중요한 사건들 또는 운동들에 의해서 특별히 영향을 받았다. 첫째, 유럽에서 자각되고 발생한 인문주의는 기독교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준 중요한 공헌자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에 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기존 교회들의 차이와 분열의 출발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개신교 개혁은 유럽과 미국 모두의 기독교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유럽개신교주의에는 크게 세 “분파”, 즉 루터의 종교개혁, 스위스 종교개혁, 영국의 종교개혁이 있었다. 비록 이들 세 개신교주의 “분파들” 모두가 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된 성경 원칙들을 크고 작게 나누고 있었다. 이들 세 커다란 원칙들은 믿음에 의한 구원,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 성경말씀의 전적인 충분성들이었다. 개신교주의의 이들 세 분파들과 기독교의 원칙들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교회사 전반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우리가 언급한 다른 “사건들”이나 “운동들”은 그것들 모두가 어느 정도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열할 것이다. 우리들은 발견과 민족주의와 산업화의 거센 물결을 언급한다. 이들 세 가지 발

달은 신대륙이 갖게 될 특성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 인문주의의 발생은 새로운 세계들을 찾아 나서려는 당대의 많은 야심가들에게 고무적이었다. 도시들의 발생과 민족주의적 정체성에 대한 열망과 함께 이것은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냈다. 이것과 더불어 인류의 사고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 산업혁명이 왔다. 이들 영향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교회들에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비록 미국의 교회들이 더 빠르게 더 많은 교파들로 갈라졌지만, 기독교 안에서 “사도들의 전통”(ancient order of things)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신대륙에서 탄생하게 된 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다. 이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환원운동의 시작에 공헌했고, 원인이었던 몇 가지 미국 교파주의의 발달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종교적인 자각

콜럼버스에 의해서 1492년에 시작된 미 대륙의 발견은 모든 미래의 세대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있었다. 쿠알벤(Quallben)은 이들 발견들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결과들을 나열하였다.

첫째, 인간의 지리적 지식의 확장이 있었다. 다음, 일반적인 면에서 인류와 특별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신대륙의 발견과 정착의 중요성이 있었다.¹⁾

두 번째 결과는 우리들의 연구에 대한 좀더 독특한 흥미를 갖는다. 우리는 대부분의 주요 교파들이 유럽에 그들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신대륙에 옮겨왔을 때, 그것들은 독특한 “미국식 취향들”을 따랐다. 워커(Walker)는 “미국 기독교는 일차적으로 유럽대륙에서 수입한 것이다”²⁾고 적었다. 그럼

1) Lars P. Quallbe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New York: Thomas Nelson and Sons, 1958), p. 413.

2)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2d ed*(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p. 430.

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에서 우리는 주요한 유럽교회의 몇몇 교파들이 독특한 미국식 교회로 변모한 것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다음 강의에서는 미국교회의 몇몇 교파들 또는 미대륙에서 그들의 역사를 시작한 교파들에서 발견되는 기본원칙들 몇 개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주의 식민지화는 교회에 지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이미 제안한대로 종교는 그것이 뿌리내리고 있는 나라의 “취향”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보인다. 미주 대륙이 정착되었을 때, 신대륙 전체에 고루 퍼진 자유에 대한 커다란 느낌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동일한 자유가 종교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대륙의 백성과 설교에 스며들 것이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 위대한 자유는 그 위대한 개인주의의 발달을 위해 허락되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점들이 극대화되면서 더 많은 분열들이 발생하였다.

대각성운동은 미국의 사회, 정치, 종교 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대각성운동의 많은 요소들이 미국인들과 그들의 신앙에 충격을 주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거슬러 실제로 반항하였다. 많은 “불경스런 클럽들”이 이러한 반항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깨어져 나갔다. 신앙인들이 격감하는 시기가 있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선교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음의 열정을 더욱 불태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둘째, 대각성운동은 대부흥운동들을 야기했다. 천막집회들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관한 설교가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었고, 대단한 감정주의가 설교의 상당부분을 특징지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과 더불어 많은 수의 교육기관들이 시작되었는데, 그것들 가운데 일부는 상위권 대학교로 발전하였다. 이들 상위권 대학교들 중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포함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초기 대학교들은 종교적인 필요들에서 시작되었고, 크게는 복음을 전파할 젊은이들을 키울 사명을 갖고 있었다.

대각성운동은 결과적으로 그것에서 환원운동이 일어난 대원동력이 되었다. 비록 이 두 가지 현상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지만,

이 둘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성은 확실히 있었다.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는 이 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종종 “제2의 각성”이라 불린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몇몇 사람들이 환원운동의 출현 시기를 앞당기고, 환원운동의 주요 추진력의 영예를 스톤에게 돌리려는 그들의 충정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의 환원운동의 시작을 알리지는 않았다. 이 운동은 환원운동의 특징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도적인 환원운동가들에게 어떤 생각의 반응들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심할 바 없이, 그 부흥운동은 환원운동의 진보를 크게 촉진시킨 기독교 신앙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다.³⁾

따라서 독자는 당대의 종교사회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

기독교는 다양한 개척자들을 따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신대륙에 들어왔다. 가톨릭교회는 가톨릭교 국가들에 의해서 옮겨왔고, 개신교는 개신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개척지로 옮겨왔다.

미국에서의 가톨릭교회. 가톨릭교회는 유럽에서 상당히 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비록 완벽한 미국 가톨릭교회 역사를 요약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간략한 논의만으로도 가톨릭교회가 가졌던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리라 본다.

초기 가톨릭교 이민들로 인해서 가톨릭 선교본부들이 산재된 스페인 정착지들이 만들어졌다. 이것에 관한 한 예로,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서부터 북부까지 모든 곳에 가톨릭교 사제들이 세운 다양한 “선교 본부들”이 흩어져 있었다. 좀더 유명한 도시들 가운데 몇 곳만

3)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s Only*(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1962), pp. 30-31.

언급한다면, 산타 카타리나, 산타 발바라, 산타 로사들이 있다. 그 도시들은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모든 곳에 하루길 거리마다 세워져 있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탐험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페르디난드(Ferdinand) 왕은 식민지 개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 후 1513년, 폰스 드 레온(Ponce De Leon)이 플로리다를 발견하였고, 1565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성 어거스틴(플로리다)의 토대들이 놓이게 되었다.”⁴⁾ 스페인 선교 본부들은 멕시코와 캘리포니아 주에 세워졌다.

불란서 정착지들 또한 일부 가톨릭교회 선교사들의 활동의 결과였다. 불란서 가톨릭 교인들은 북에서 내려와 1608년에 퀴백(Quebec)을 세웠다. 불란서인들은 “캐나다, 루이지애나, 뉴욕의 절반, 매인의 절반, 버몬트의 절반 등을 포함하여.... ‘북미주에서 소유권 청구’를 하였다. 북미주는 균일한 가톨릭교회 인구를 갖도록 되어 있었음이 드러났다.”⁵⁾ 라르즈 쿠알벤(Lars Qualben)은 매우 훌륭하면서도 간략한, 독자가 보고 싶어 할, 그 이후의 발전들에 대해서 약술하고 있다.

미국의 가톨릭교회가 누렸던 성장은 다음의 수치를 보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789년, 가톨릭 교인의 수는 19,000명에서 24,000명 정도였으나, 1808년에는 대략 150,000명으로 늘었고, 1850년에는 1,726,000명으로, 1870년에는 10,626,000명으로, 1958년에는 35,846,000명으로 성장하였다. 1986년 세계연감에 의하면, 1985년 미국의 가톨릭 교인들의 수는 52,392,000명 이상이었다.

미국 가톨릭교의 이런 놀라운 성장은 두 가지 주요 원인들에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많은 수의 가톨릭 교인들이 유럽 국가들에서 이민을 해왔고, 그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그들의 가톨릭교 신앙도 함께 가져왔다. 둘째, 높은 출생률 덕분에, 가톨릭교인 가족들의 수가 거의 줄지 않았고, 교회성장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것이 “불신자

4) Qualben, p. 416.

5) *Ibid*, pp. 416-417.

들"이나 다른 교파들에서 가톨릭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깎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가톨릭교회는 복음전도에 매우 활동적이었으며, 특히 핵심적인 선교사 단체였던 예수회 소속 신부들이 그러했다. 가톨릭교회는 목적을 이룰 매우 성공적인 수단들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것들 가운데는 복지사업, 사립 교구학교들, 문서사업, 그리고 미사 축제로 모아지는 구심성이 포함된다. 비록 가톨릭교회가 가장 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 교파들의 전면들의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는 불만을 품은 분열된 그룹들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수적인 전통신학과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려는 (사제들은 물론 평신도들을 포함한) 많은 가톨릭 교인들의 시도들에서 발생하는 차이점들에서 유래한다.

미국 가톨릭교의 "인격"에 관련된 다른 두 가지 단면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첫째, 교구학교들은 더 나아가 가톨릭교의 가르침들과 원칙들에 이용되었고,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들은 늘어나는 비용으로 인해서 생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특징은 가톨릭교의 계층들이 "새나가는" 양을 줄이는데 공헌하였다. 둘째, 미국 가톨릭교 안에 좀 더 진보적인 요소가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민주적인" 삶의 양식에 기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확실하게 교황 요한 23세와 같은 최근의 교황들을 특별히 상기시키는 것으로써 가톨릭교회 고위직이 실시한 좀더 진보적인 정책들의 영향에 기인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개신교. 개신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자유를 발견하였다. 미국 정착 아주 초기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몇몇 종파들은 종교의 자유를 다른 종파들에서 배제시키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지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개신교의 시작과 미국 식민지화의 시작은 동시 발생적인 사건들이었다."⁶⁾고 쿠알벤이 관찰한 미국의 종교적 풍토는 건강하였다.

미국에서 누린 자유는 새로운 교파들의 출범을 더 수월케 하였으

6) *Ibid.*, p. 413.

나, 대부분의 가장 오래 미국의 교파들은 유럽의 교파들의 단지 미국식 변형들이었을 뿐이다. 로널드 오스본은 그의 저술, 『미국 기독교의 정신』⁷⁾에서 이 현상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하였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미국에 있는 유럽교파주의의 중요성에 관련된 몇몇 중요한 사실들에 관해 한 간략한 조사에 돌릴 것이다.

영국 교회(The Church of England)는 월터 래라이 경(Sir Walter Raleigh)이 버지니아 주를 식민지화 한 직후, 미국에 세워졌다. 여왕에 대한 세금지원이나 충성과 같은 일들을 위해서 이민자들 위에 군림했던 영국 교회는 혁명을 불러오게 되었고, 결국 영국교회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식민지들이 독립을 얻게 되었을 때에, 모든 실제적 목적들을 위한 영국 교회는 미국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1789년 설립된 개신교 감독 교회(Protestant Episcopal Church)가 영국 교회를 승계 하였다. “이 교단은 모교회의 신앙과 예전과 영적 전통들을 영속시켰으나, 조직만큼은 미국인들의 필요에 따라 조심스럽게 맞춰나갔다.”⁸⁾

회중 교회(The Congregational Church)는 1609년 존 로빈슨(John Robinson)에 의해서 영국 게인즈보로우(Gainsborough)에서 세워졌다. 쿠알벤은 세 가지 기본 원칙들, 이를테면, 전국 규모를 가진 교회의 위상, 외부 권위로부터의 자유, 자체 조직의 창설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⁹⁾ 미드(Mead)에 의하면, 회중 교회의 일부 전통유산은 단 일신론자들(Unitarians)의 진보적인 배경에서 유래한 것이다.¹⁰⁾ 그러나 더 초기의 회중 교회는 유럽에서 유래하였다. 1620년 11월 9일, “청교도들”(Pilgrim Fathers)이 상륙하자, 그들은 플리머스,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그리고 뉴 헤이븐에 이주자들을 세웠고, 법으로 회중 교회를 세웠으며, 하버드와 예일대학을 1636년과 1701년에 각각 세

7) Ronald O. Osborne, *The Spirit of American Christianity*(New York: Harpers, 1958).

8) Qualben, p. 503.

9) *Ibid.*, p. 419.

10) Frank S. Mead, *Handbook of Denominations in the United States 8th ed.*, revised by Samuel S. Hill(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p. 240.

왔다.

루터 교회(The Lutheran Church)는, 물론, 독일 종교개혁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후에 그들은 한 그룹으로써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1623-1624년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들은 후에 뉴욕으로 알려진 뉴 암스테르담에 정착하였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미드는 열 개의 다른 분파들을 가진 루터 교의 대략적인 교인 수를 거의 9,000,000명으로 추산하였다.¹¹⁾ 가장 큰 두 개의 루터 교회 분파들은 2,500,000명 교인을 가진 미주리 총회(Missouri Synod)와 3,000,000명 이상의 교인을 가진 미주 루터교(American Lutheran)이다. 이들 두 그룹들은 교리적인 차이로 갈라졌는데, 미주리 총회는 보수적이고, 미주 루터교는 매우 진보적이다. 루터교의 여러 다른 분파들을 하나의 커다란 교파로 통합시키려는 노력들이 최근에 있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나 신학적인 격차가 너무 커서 통합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침례교회(The Baptist Church)는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프로비덴스(Providence) 시에 로저 윌리엄즈(Roger Williams)에 의해서 1639년 미국에 세워졌다. 침례교회의 성장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파들 가운데 하나로 발전할 만큼 빠르고 지속적이었다. “침례교인들은 미국에서 주요 개신교 세력들 가운데 하나를 구성한다. 27개 침례교 교파들은 1983년 대략적인 교인 수를 29,000,000명으로 보고하였다. 약 95,000개의 교회들이 있고, 개교회 중심이다.”¹²⁾고 미드는 기록한다. 미드가 기술하는 대로, 상당한 분열이 침례교회들 안에 존재한다. 1845년 북침례교와 남침례교가 노예문제로 갈라졌다. 그 때 이후로, 다른 분파들이 발생하였다. 침례교인들은 미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텍사스로부터 동해안과 플로리다로부터 걸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남동부에서 더 강성하다. 침례교회들의 신학적 입장을 보면, 근본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가장 큰 부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는 1611년 버지니아에 정착한

11) *Ibid*, pp. 142-153.

12) *Ibid*, p. 34이하.

알렉산더 휘테이커(Alexander Whitaker)의 노력들 덕분에 미국 기원을 갖고 있다. 유럽대륙의 장로교회는 모든 교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칼뱅주의적인 교단 가운데 하나였으며, 상당부분 칼뱅과 존 낙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미국 최초의 장로교회는 롱아일랜드에서 1640년에 시작되었다. 장로교회에는 대략 12개 정도의 다른 분파들이 있다. 가장 큰 그룹이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U.S.A.)이다. 1958년 그들의 수는 6,933,189명이었다. 장로교는 그들의 모든 분파들과 더불어 확실히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퀘이커교도들(The Quakers) 혹은 **프렌드들(Friends)**은 1656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앞서 우리는 유럽에서의 그들의 시작을 논하였다. 그들은 처음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그리고 뉴욕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적어도 20년 동안 “주류” 교회들로부터 크게 탄압을 받았다. 윌리엄 펜(William Penn)은 퀘이커교도 운동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그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펜은 탄압 받는 퀘이커교도들을 위해서 1681년 피난처를 세웠다. 프렌드들의 수는 100,000명을 넘는다. 그들은 예배의 내적 영적 측면들을 깊게 강조하는 일단의 정적주의자(quietist)들이다.

감리교회(The Methodist Church) 역시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1958년 그들의 수는 11,917,286명이었고, 최근 그들은 15-16개의 분파에 총 13,000,000명의 교인 수를 주장한다. 감리교인들은 독특한 감리교인 그룹으로 미국에 처음 오지 않고, 기존 영국교회의 교인들로 웨슬리의 추종자들로서 왔다. 미국 감리교회를 이끈 몇몇 인물들은 토마스 코크(Thomas Coke)와 프란시스 애즈버리(Francis Asbury)였다. 1784년 12월 24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회의 때에 “방법론자 감독교회”(Methodist Episcopal)란 이름을 그들의 이름으로 선택하였다. 회의 기간 동안, 프란시스 애즈버리가 그들의 감독으로 선출되었다.¹³⁾

결론

13) 통계는 백과사전 브리태니커에서 인용하였다.

이 간략한 조사는 신대륙에 가한 기독교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와 주요 개신교 교단들 모두가 유럽에서 시작하였고, 미주로 건너와 성장하였다. 이들 기독교 교단들에 관한 좀더 상세한 자료는 미국의 종교발전들을 다룬 역사 서적들에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 살펴본 모든 교단들은 유럽에서 시작하였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몇몇 독특한 미국의 교파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시작하였는가를 공부할 것이다.

토의 주제들

1. 어떻게 개신교 종교개혁이 기독교가 미주대륙에 이식되는데 영향을 끼쳤는가?
2. “기독교 정신”이란 말을 토의하십시오. 무슨 영향을 이 정신이 미주 기독교에 끼쳤는가?
3. “대각성”이란 말과 그것이 미국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을 토의하십시오.
4. 무슨 영향을 미주 기독교가 초기 미주 교육에 끼쳤는가?
5. 미주에서의 가톨릭교회 운동과 개신교회 운동 모두를 토의하십시오. 어떻게 그것들이 전도 형태들에서 달랐는가?
6. 이 강의에서 논의된 각개의 기독교 교파들의 특성을 토의하십시오. 어떻게 그것들이 새로운 미주 환경에서 영향을 받았는가를 설명하십시오. 각 교파들에 기여한 중요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3강

미국의 교파

American Denominationalism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만큼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거의 없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했었을 뿐 아니라 그 문제들 또한 심각한 것들이었다. 이것은 근대 미국 시대 때까지의 교회에 다소 닮았다. 분열은 기독교의 선교 노력들의 효과를 위협하고 있었고, 우리가 앞에서 본대로, 미국의 자유는 기독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유를 찾는데 공헌하였다.

종교는 식민지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사실 많은 초기 정착자들은 그들이 고통을 받았던 정치적 억압에서 뿐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도망하여 왔다. 미국을 세운 “전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다수가 정치 사회적인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종교에 부여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가 사용하는 주화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요성을 느꼈다. 하버드, 예일, 윌리엄과 메리, 프린스턴, 심지어 미시간 대학교를 포함한 미국의 많은 초창기 일류대학들은 강력한 종교적 토대들 위에 세워졌다. 예를 들면, 미시간 대학의 교정에는 대학의 종교적 토대를 존경하는 기념패가 있다.

그러므로 미국 교파들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장(章)이다. 이것은 적어도 독자에게 흥미로운 세 가지 입장들에서 사실이다. 첫째, 현존하는 유럽의 교파들이 초기 정착자들과 함께 신대륙으로 옮겨왔다. 둘째, 많은 수의 교파들이 미국에서 시작하였다(이 부분이 본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각

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환원운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이다. 그리고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세 가지 주요한 개념들, 즉 반전과 부흥, 미국 교파들의 발생, 그리고 미국 교파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쇠퇴와 부흥

18세기 미국 기독교는 쇠퇴하였다. 많은 이유들이 이 쇠퇴에 대해서 언급될 수 있겠지만, 기독교에 중요한 충격을 가했던 것은 확실히 “이성시대”였다. 이 시대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교회는 이 “조사”를 피하지 않았다. 독일과 기타 유럽 신학의 자유주의는 미국에 유입되어 퍼져나갔다. 교회들은 영향력과 교인등록 모두에서 쇠퇴를 경험하였다.

불신과 무신론이 미국에서 대중화하였다. 이것이 “이성시대”의 영향의 결과이었는지 혹은 공존이었는지는 이 순간 우리들에게 중요치 않다. 매우 저명한 몇몇 작가들, 예를 들면, 토마스 페인(Thomas Paine)과 볼테르(Voltaire)가 무신론 주장을 위한 “선교사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들도 역시 예전처럼 신앙학습의 센터들이 되기보다는 불신의 센터들이 되었다. 이 모든 영향들은 미국 기독교의 특징에 중요한 충격을 가하였다.

19세기가 열리면서 미국 기독교 분야들에 대단한 부흥이 일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 부흥”을 상세하게 논할 시간도 공간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독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더 깊게 연구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확실히 미국 역사에 주요 운동들 가운데 하나이며, 확실히 전체 교회사의 중요한 측면이다. 우리가 이 책의 나머지 강의들에서 공부하게 될 대부분은 “대 부흥”이 미국 기독교에 중요하게 끼친 영향이다.

이 시점부터 미국 기독교는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훨씬 더 큰 힘이 되었다. 미국의 다양한 교회들은 커다란 부흥을 즐겼다. 그리고 미국 기독교는 자기 자신의 “독특한 성격”을 만들었다. 비록 그리스

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일치를 권장하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성격”의 결과로써 미국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점증하는 분열로 인해서 서글퍼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들이 새로운 성격과 미국 기독교에서 경험한 점증하는 분열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확실히 부정할 수 없다.

미국 교파들의 발생

미국 기독교의 새로운 성격 또는 특성은 적어도 두 가지 거의 상반된 특징을 갖는다. 첫째로 미국 땅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교회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보수적이었다. 둘째로 대부분 그것들은 이 땅에 그것들을 존재케 한 어떤 급진적 접근을 갖고 있다.

다음의 몇몇 단락들에서 우리들은 19-20세기 미국의 주요 교파들 가운데서 몇 개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지면관계상 개개그룹들에 대한 최소한의 일부 본질만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Seventh-Day Adventism).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파들 가운데 하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다. 미국에 몇 개의 재림교회 교파들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장 크다. 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제칠일 안식일 예배를 강조하는데 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뉴욕주 로우 햄프턴(Low Hampton)의 농부였던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밀러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니엘서와 다른 예언들의 새로운 해석들을 알아냈다고 주장하였고,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1843년 3월 22일과 1844년 3월 22일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많은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팔았다. 이 사건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밀러는 날짜재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정확한 날짜는 1844년 10월 22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프랭크 S. 미드(Frank S. Mead)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1844까지 북미주에 50,000에서 100,000명 정도의 예수 재림교인들이 있었다. 기대했던 날짜가 다가오자, 일부 예수 재림교인들은 재산을 처분하였고, 살림도구들을 주어버렸으며, 모든 그들의 대금들을 결재하였다. 그리고 주께서 오시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렸다. 10월이 다 지나도록 재림이 없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어버렸고, 일부는 그들이 이전에 소속했던 교회로 되돌아갔으며, 다른 일부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1845년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정식으로 조직하였다. 1855년 본부가 미시간 주 배틀 크릭(Battle Creek)에 세워졌다.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Ellen White)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동의어로 쓰이는 이름들이며, 그들은 이 교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리들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두 가지 법칙, 즉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다. 2)십계명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 법은 도덕법이며, 따라서 아직도 유효하다. 3)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믿음의 규칙이다. 그리고 4)사후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보상을 받기 위해 부활이 그 영혼을 다시 살릴 때까지 영원토록 잠든다.²⁾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 수는 대략 400만 정도이다. 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미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북미주에 10개의 인문대학과 3개의 종합대학교, 1개의 신학대학원 그리고 의과, 치과, 물리치료과 대학들이 있다. 미국과 해외에 있는 교회는 442개 의료센터들과 51개의 간호사 양성소들과 926개의 대학과 중등학교들 그리고 4,105개의 초등학교들을 후원하고 있다.³⁾

1) Frank S. Mead, *Handbook of Denominations in the United States*, 8th ed., Rev. by Samuel S. Hill(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p. 20.

2)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운동을 가장 잘 다룬 것들 가운데 하나는 캔라이트(D. N. Canright)의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신앙을 버리다』라는 책이다. 캔라이트는 한때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였던 자로써, 안식일교회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논쟁들에 해답을 주고 있다.

3) Mead, p. 24.

예수 재림교인들은 문서선교는 물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이용한 선교에서도 매우 활동적이다.

성결교회들(Holiness Churches). "성결" 교회들로 종종 간주되는 교회들이 많다. 비록 그들을 같은 교파로 간주하는 것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공통적인 많은 특성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성결과 오순절 그리고 비슷한 교파들과 같은 교파들을 살피고 있다.

성결 또는 오순절 운동은 1880과 1890사이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기독교 운동에 새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드는 "오순절 운동이 다수의 부흥운동 성격을 띤 미국의 교파들과 성회들과 교회들에 사용된 포괄적인 말이다."라고 제안한다.⁴⁾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들 교회들은 교인의 자격으로 극단적 보수주의 삶을 요구하고, 성령의 "제2 은혜사역"과 오늘날에도 성령의 기적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과 대부분의 근본주의자 교파들에 공통적인 다른 교리들을 믿는다. 성경은 그들 신앙에 중심이다. 모든 "성결" 혹은 "오순절" 교파들은 그 수가 도합 대략 150만 명 정도이다. 비록 하나님의 성회들이 미국 기독교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미드는 그들을 오순절 교회들에 포함시켜 논의한다.

하나님의 성회 교회들(The Assemblies of God)은 1914년 아칸소 주 핫스프링즈(Hot Springs)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성회는 가장 큰 오순절 교파들 가운데 하나이며, 한 몸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다양한 교파들에서 왔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회는 근본주의자에 속한다. 그들은 거룩한 말씀들의 무오류와 영감을 강하게 믿으며, 오늘날에도 성령의 기적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과 반전(反戰)과 영원한 보상과 형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의 교인자격 역시 다른 오순절 교파들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미드는 말한다.

나사렛교회(The Church of the Nazarene). 일반적으로 나사렛사람의 교회로 알려진 나사렛교회는 1890년경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4) *Ibid*, p. 194.

감리교회에서 파생하였고, 그들은 상당부분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들도 또한 앞서 언급한 오순절교회들이 권장하는 가르침의 일부를 지킨다.

많은 근본주의교파들처럼, 나사렛교인들은 흡연과 음주에 눈살을 찌푸릴 만큼 매우 엄격한 도덕법을 장려하며, 두 가지 성례전 즉 세례와 성만찬을 믿는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매우 활동적인 사역을 벌이는 선교사들과 더불어 미국에 50만이 넘는 교인들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들(Churches of God). 독자는 우리가 복수로 "교회들"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을 주목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미국에는 이 명칭을 사용하는 꽤 많은 분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편의상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공부하려 하지만, 다양한 분파들 사이에는 다소의 차이점들이 있다. 미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에 있는 적어도 200개의 독립교단들이 1900년을 전후한 수년 동안에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동부 테네시 주에서 뿌리를 내린다. 특히, 톰린슨(Tomlinson) 가족과, 테네시 주 남동부의 마을, 클리버랜드(Cleveland)는 이들 몇몇 하나님의 교회 분파들이 역사적으로 관련된 중심부이다.⁵⁾

주된 교파들 가운데 하나는 테네시 주 클리버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고, 성령의 세례와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적의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을 믿는다. 그들은 특성상 근본주의자들이며 “성결”파이다. 원래 톰린슨(A. J. Tomlinson)은, 그들이 몇 개의 분파로 쪼개진 다음, 1903년부터 1923년까지 감독회장이었다. 그들은 교인 수가 거의 5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은 50개 이상 분파들이 원래의 클리버랜드 교파에서 쪼개져 나왔다고 보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분파는 인디애나주 앤더슨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 분파는 1880년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매우 느슨한 회중교회 조직을 갖고 있다. 그들은 세족을 실행하고, 성찬식을 준수하며, 침수세례를 베푼다. 그들은 매우 보수적인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보고

5) *Ibid*, p. 83.

된 교인 수가 대략 20만 명 정도이다.

말일성도(Latter-Day Saints). “말일성도”란 말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줄여 쓴 말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들에게 “몰몬교도”로 알려져 있다. 몰몬교는 1820년 일련의 연속적인 환상들을 보았다고 주장한 뉴욕 출신의 조셉 스미스(Joseph Smith)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윌리엄 워렌 스위트(William Warren Sweet)은 몰몬교의 기원에 관하여 다음에 같이 적었다.

천사 모로니(Moroni)가 조셉 스미스에게 신세계의 성경이 가까운 언덕에 묻혀있다는 것과 천사가 허락할 때까지는 그 책을 캐내지 말아야 한다고 계시하였다. 7년 후 허가가 떨어졌고, 1827년 9월 22일 조셉 스미스는, 나중에 자신이 개량된 이집트 방언이었다고 밝힌 글자들이 새겨진 조금 얇은 금판들을 캐냈다.⁶⁾

스미스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 금판들을 번역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몰몬경이다.

신세계의 예언역사로 주장되는 몰몬경은 말일성도들에 의해서 성경과 동일한 책으로 인정되고 있다. 말일성도들은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은 1831년에 뉴욕을 떠났고, 오하이오 주 커크랜드(Kirkland)에서 잠시 동안 거주하다가 미주리 주로 이주하였고, 그 다음에는 일리노이 주 노부(Nauvoo)로 이주하였는데, 그곳에서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과 히럼(Hyrum) 스미스는 살해되었다. 그리고 브리그햄 영(Brigham Young)이 뒤를 이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영은 서쪽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유타 주 솔트 레이크 시티에 정착하였다. 그들의 핵심본부도 줄곧 그곳에 있어왔다. 그들은 일부다처제를 신봉하지만, 1890년부터 국가법으로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 그들은 사례비를 주는 목회사역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개개인 몰몬교도가 나가 사역한다. 그들 가운데 다수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나가서 몰몬교를 전파하는데 그들의 삶의 일정기간을 바친다. 몰몬교

6) William Warren Sweet, *Religion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Culture 1765-1840*(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pp. 286-287.

는 세계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종교집단들 가운데 속하며, 교인의 개인적인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요구한다. 몰몬교는 분열되었고, 초기 몰몬교에서 갈라져 나온 네다섯 개의 분파들이 있다.

여호와 증인(The Jehovah's Witnesses). 여호와와의 증인은 찰스 러셀(Charles T. Russell)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1870년 목시적인 공론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러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914년 재림하여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여호와와 증인은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여전히 주장한다. 러셀은 1916년에 죽었다. 1931년 그들은 여호와 증인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채택하였고, 판사 루더포드(J. F. Rutherford)가 그들의 대표자가 되었다.

여호와와의 증인들은 굉장히 활발한 문서선교를 하고 있다. 미드는 "공식적인 저널인 『파수꾼』(Watchtower)이 10,050,000부수를 발행하고 있고, 10억 이상의 성경책과 책과 전도지들이 1920년 이후 배포되었고, 적어도 176개 언어로 출판되고 있다. 2,477,000명 이상의 여호와 증인들이 세계 전역에서 이 사역에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한다.⁷⁾ 그들은 투표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일들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 그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평화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전천년설 교리를 믿으며, 지옥의 교리를 부인하고, 천국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성경 공동체 교회들(Bible Community Churches). 성경 공동체 교회들의 엄청난 증가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20세기 미국 기독교의 이 중요한 현상을 논의할 것이다.

비록 공동체 교회들이 1세기 이상 오랫동안 존재했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운동은 좀더 최근에 발달된 것이다. 공동체 교회들은 먼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좀더 작은 지역사회들에서는 교인들이 너무 작아서 그들이 실제로 유익하게 섬길 수 없었던 작은 교파들을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더욱 적절하게 하나의 공동체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신앙적인 요구들을 자주 더 폭넓게 섬겼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교파가 갖는 교리 때문에 다투지 않

7) Mead, p. 126.

고 특정 공동체들의 독특한 요구들에 맞춰갈 수 있었다. 공동체 교회들은 또 많은 수의 “경쟁”적인 교파들에 자주 있는 당파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들 안에서 더 큰 일치감을 제공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또는 “성경”교회들은 좀더 최근에 발달된 것이다. 전 국가에 걸친 수많은 지역사회들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더 강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교리적인 생각에 있어서 이런 변화는 현 미국기독교계의 큰 교단이 좀더 전통적인 “조직” 교회들에 가입하기보다는 비전통적인 타입의 교회 쪽으로 좀더 포커스를 맞추게 한 원인이 되었다.

비록 “공동체 교회들의 전국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ommunity Churches)⁸⁾로 알려진 조직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가입 교회들이며, 기껏해야 비공식적인 토대 위에서 그들이 함께 모이는 다수의 분파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 교회들은 많은 이슈들, 즉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의 성경,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의 성육신, 예수를 통해서 오는 구원, 예수의 역사적 부활, 기타 많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강력한 일치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독특한 차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 교회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카리스마, 즉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들이거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카리스마”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해석에서조차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교회들의 꽤 큰 수가 카리스마와는 무관할 것이다. 예배의 표준들과 실천들에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에서 독자는 예배에서 강한 강조를 찾게 될 것이다. 예배경험에서 교인의 참여는 분파마다 강렬함에서 다양할 것이다. 게다가 어떻게 교인자격이 획득되는가에서 차이들이 존재한다. 비록 세례가 본질로써 그들 대부분에 의해서 교육되지만,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정도나 이유에 대해서는 차이들이 있다.

이들 다양한 교회들에 적용된 이름들은 무수히 많다. 독자는 교회들의 목록을 찾기 위해서 원하는 도시의 전화번호부를 참고할 수 있

8) *Ibid*

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도시마다 다양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성경 공동체 교회들을 다루고 있는 목적은 독자에게 성경중심의 가르침주변으로 집중하는 운동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권위 있는 자료로써 성경에 놓고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강조를 보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동은 신약성경 기독교어로 환원을 향한 미국 기독교계의 좀더 열린 마음의 조짐일지도 모른다.

미국 교파들의 특징

비록 우리들이 중요한 미국기독교계의 많은 운동들을 보았지만, 그것들 모두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교파들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많은 미국의 운동들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십중팔구 미국 “방식”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반작용하려는 자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들 작은 운동들은 그들의 대단한 열정과 열광으로 잘 알려져 왔다. 그들은 선교 지향적이었고, 그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운동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성경과 또는 공동체 교회들의 분파들에서 사실이었다. 이들 보수적인 운동들의 상당수는 좀더 전통적이고 조직화된 교회들을 거부하는 반응들에서 비롯되었다.

셋째, 미국 교파들의 상당수가 그들의 교리들에서 어떤 급진적인 성향이나 접근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이 앞 단락에서 말한 것과 반드시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독자는 이들 많은 운동들을 볼 수 있고, 역사적인 기독교로부터 철저한 이탈들, 즉 제칠일에 관한 교리들, 천년설에 관한 가르침들(비록 이것이 전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유사한 차이들을 볼 수 있다.

결론

미국 교파들은 교회사의 매우 중요한 장(章)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한정된 연구에서 다룰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으로 알려진 독특한 운동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 하기 때문에, 미국 교파들이 환원운동의 발생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에서 만족하려한다. 그리고 이 운동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소상하게 밝혀질 것이다.

토의 주제들

1. 미국 교파들은 자기 자신의 "성격"을 만들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그것의 원인이었는가? 어떻게 그것이 유럽 교파들과 달랐는가?
2.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관해서 토의하십시오. 그것의 독특한 특징들은 무엇인가?
3. 어떤 식으로 당대의 종교는 무신론과 근대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가?
4. 어떤 독특한 생각들을 “성결” 분파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는가?
5. “하나님의 교회” 분파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분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토의하십시오. [백과사전들이나 다른 참고자료들을 이용하여 보충자료를 모아 수업시간에 발표하게 한다].
6. 몰몬교회 또는 말일성도들은 이 강의에서 배운 다른 그룹들과 다르다. 몰몬교회의 독특한 특색들을 토의하십시오.

7. 여호와의 증인을 토의하시오. 그들의 전도방법들을 설명하시오.

8. 전화번호부를 사용하여 독자의 도시에 있는 “성경 공동체 교회들”이나 교파에 속하지 아니한 “독립교회”의 명단을 작성하시오. 만약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들의 독특한 교리들을 찾아내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수업시간에 토의하시오.

제4강

초기 탐색

The Early Search

17세기 말엽에 미국의 종교는 매우 극심한 쇠퇴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대 부흥을 위한 필요를 언급하였다.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는 이 두 개의 간략한 단락들에서 기독교의 조건들을 기술한다.

18세기가 미국에 도래하자, 하나님의 신의 엄청난 운행의 표시들이 돌체스터(Dorchester)가 “기독교 역사상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기간”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나타났다.

이 비극적인 쇠퇴는 안정되고 책임 있는 정부의 붕괴, 유동적인 경제, 자연신론과 계몽주의 사상의 침투와 같은 많은 원인들 때문이었다.¹⁾

쇠퇴기에 불신과 무신론, 당대의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신앙 비난, 그리고 무관심의 팽배함이 엄청나게 성장하였다. 멀치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더 진술하고 있다.

교회들은 무기력하였다. 장황하고 신학적으로 난해한 신조들은 엄격한 친교의 시금석으로 사용되었다. 성직자는 성경해석을 남용하였고, 사제기능들을 행사하였다. 성경은 대중들에게 사실상 닫힌 책이었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조직적이고 점진적인 계시로 간주되지 않았다.²⁾

1)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s Only*(Cincinnati, Ohio: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62), p. 19.

2) *Ibid*, p. 21.

우리가 진술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1700년대 말까지 미국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찰들이 적어도 크게 세 가지이다. (1)교파들은 점점 더 배타적이 되고 있었고,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적인 확신들에서 돌아서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2)미국인은 그들이 처음 맛보는 자유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더 많이 구속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3)좀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에로 돌아가야 한다는 충동이 더욱 깊이 느껴지게 되었다.

자연의 대 원칙

자연의 법칙들 속에는, 자연의 영역 속에 원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속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한 원칙이 있다. 이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또는 영적인 것이든, 뿌려진 씨는 성장하게 될 식물과 열매 혹은 후대의 타입을 결정한다. 예수는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자주 이 원칙을 활용하셨다. 그분은 왕국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만약 다른 어떤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것이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의 결실을 해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이 원칙은 자연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의 적용을 그곳에서 자주 잇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왕국의 씨가 심어질 때, 그것이 1세기에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동일한 결실을 생산해 낼 것이다. 수세기를 거쳐 신앙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그 씨를 뿌리는데 있어서 좀 부주의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한 기독교의 이름으로 실행된 많은 것들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본래 모습의 기독교가 아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되었다.

18세기 마지막 십 년에 다가서면서 지리적으로 넓게 격리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분열의 문제들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서 논의한 이 생산의 원리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분열의 열매들을 보았고, 인류의 마음 밭에 뿌려졌어야 할 씨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음을 인식하였다.

이 특별한 강의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달성해야 할 주요한 목적들을 갖고 있다. 우리들은 첫째로 신약성경 기독교의 환원을 위한 가장 초기 몇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둘째로 그 운동의 가장 초기 지도자들을 몇 분 소개하기를 원한다. 이들 두 가지 목적들은 매우 밀접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함께 연구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환원운동과 같은 현상을 위해서 역사가 어떻게 무르익었는가를 보는 것이 적합하다.

때가 참

많은 책들이 환원운동의 시작과 발전에 관하여 저술되었고, 우리는 공부를 계속하는 동안 그들 가운데 몇 권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 운동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또 비록 부분적으로 그 목적이 이루어졌지만 상당한 분열이 또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비통한 결과들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글에서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적인 운동이 서부 세계에서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좀더 완전한 길"에 탐색이 시작되었다. 얼 웨스트(Earl I. West)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작, 『사도전승의 탐색』(*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19세기로 접어들자마자, 다양한 세력들이 사도적 기독교에 환원할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종교 집단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³⁾

우리는 개혁운동이 원했던 결과들을 가져오지 못했고, 또한 신약성경 교회로 환원하는 일에도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이미 살

3) Earl I. West, *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Nashville, Tenn.: Gospel Advocate Co., 1949). 이 책은 네 권을 한 질로 엮은 환원운동사 가운데 첫 권이다. 이 책들은 환원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펴보았다. 개혁가들은 성경말씀들을 재검토함으로써 큰 진전을 보았다. 개신교 개혁은 세 가지 큰 원칙들을 고무시켰고, 이 모든 원칙들은 개혁의 모든 “분파들”에 배어들었다. (1)성경은 수세기 동안 성직자의 수중에 있다가 사람들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2)만인 제사장직은 사제만의 특별한 제사장직의 타당성을 깎아 내리면서 재차 확인되었다. (3)만약 실제로 그것이 또한 믿어지지 않았다면, 믿음의 중심성이 실천된 중세의 “행위 구원”을 대신하였다.

개혁가들은 교회를 “환원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개혁 선도자들은 기존의 갈라진 자신들의 교파들을 개혁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신앙종파들의 시작이었다. 우리들은 예수께서 설정하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댄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마 9:14-17)는 또 다른 원칙의 진리를 보았다. 사실 대부분의 핵심 개혁가들은 새로운 교파를 시작할 계획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활동들이 가져준 결과는 자신들을 개혁하거나 연합하기보다는 분열과 교파들의 확산이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운동은 그것의 목표가 기존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이름, 교리, 실천에 있어서 신약성경 교회로 돌아감 또는 환원이었다. 그 운동은 진실로 “사도전승의 탐색(옛 질서의 탐색)”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17세기 말과 18세기의 많은 요소들이 있었다. 이 요소들 가운데 단지 몇 개만 거론하자면, 미주 식민지들의 독립선언과 시대의 종교 사회적인 분위기들 그리고 서부 정착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은 1776의 전쟁에 이어 서명되었다. 이 시대에 앞서(대략 18세기 중엽에) 주요한 신앙부흥이 있었는데 종종 대각성이라고 불리었다.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와 조지 횃필드(George Whitefield)와 같은 사람들은 이 운동에서 중심적인 인물들이었다.⁴⁾ 그러나 독립선언은 미국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4) Leroy Garrett, *The Stone-Campbell Movement*(Joplin, Mo.: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1), p. 61이하. 가렛트(Garrett)는 이 운동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들을 제공한다.

유럽에서 피신하였던 해방감을 진정 제공하였다. 이 자유는 그들의 신앙의 삶 중에서 분명하게 강한 영향력이었다.

당대의 종교 사회적 분위기는 이전 단락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각성이후 신앙적인 열정이 냉각되었다는 점을 부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냉각기는 길지 않았다. 왜냐하면, 1700년대 마지막 십 년 동안 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흥은 사람들이 환원예로의 부름에 준비를 갖추게 한 한 정신을 사로잡았다.

세 번째 영향력은 서부정착이었다. 1800대 초기부터 서부⁵⁾로 향하는 거대한 물결이 일어났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개척정신을 가지고 갔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신앙교육에 원숙한 사람들을 발견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렛트(Garrett)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개척지에 사는 사람 90퍼센트 이상이 어떤 종교에도 가입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부로 길을 떠났던 것은 그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동부 여러 주들에서 떠나고 싶었을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유럽과 그곳의 종교적인 횡포로부터 멀어지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에 이르렀다.⁶⁾

그래서 성장하는 국가는 미개한 청중에게 종교사상에서 더 큰 자유를 제공하였고, 따라서 환원이 시작되었다.

탐색의 시작

환원운동이 시작된 분명한 날짜를 정할 수는 없으나 실질적인 환원운동은 19세기가 출발하기직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이 운동이 실제로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작고 때로는 미미한 운동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역자 주: 여기서 말하는 서부는 미국 동부 오하이오 강을 따라 형성된 변방 개척지역들을 말한다. 오하이오 주와 그 주변지역들은 “서부”나 서부 보류지(개척지로 생각되었거나 그렇게 불리었다.

6) *Ibid*, p. 62.

우리가 진술했듯이, 수많은 영향들이 그 운동의 시작과 성공에 공이 컸다. 개혁사를 통해서 "오직 성경만"을 부르짖는 전체적인 태도는 이 슬로건을 수용하는 방향의 인간교육을 통해서 그 운동의 성공에 확실하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그 운동이 분명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자, 다양한 지도자들이 거의 모든 주요 종교 그룹에서 일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형태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오켈리 운동(O'Kelley Movement). 첫 번째 주된 시도들 가운데 하나는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ey)의 개혁들이었다. 오켈리의 배경에 대해서 얼 웨스트(Earl West)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오켈리의 출생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1735년에서 1757년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1735년 설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 그 이유는 오켈리가 1826년 10월 16일 사망할 당시, 그의 나이가 92살이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오켈리의 출생 기록들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비록 그가 웨이크(Wake) 군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켈리는 버지니아 주 맥클렌버그(Mecklenburg) 군에서 출생한 것으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고 있다. 맥클렌니(MacClenny)는 이 두 가지 설 모두를 부정하면서 오켈리의 출신지가 아일랜드라고 말한다.⁷⁾

오켈리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두었다.

오켈리는 존 웨슬리(John Wesley)를 대단히 존경하였고, 그의 나이 대략 50세쯤에 감리교(Methodist Episcopal Church) 설교가로 안수를 받았다. 그는 안수 받기 이전에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일이었다. 오켈리는 안수를 토마스 코크(Thomas Coke)에게 받았다. 감리교는 1784년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Baltimore)에서 성탄절 회의 때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지적되어야 한다. 오켈리는 1785년과 1787년 사이에 안수를 받았다. 그는 매우 인기 있고, 매우 권세 있는 설교가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

7) West, p. 7. 웨스트의 설명이외에도 레로이 가렛트는 오켈리 운동(pp. 70-83)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하고 있고, 맥클레니(W. E. MacClenny) 또한 『제임스 오켈리 목사의 생애』 *The Life of Rev. James O'Kelly*(Indianapolis: Religious Book Service, 1950)라는 중요한 저술을 남겼다.

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1784년 성탄절 회의 때에, 프랜시스 애즈버리(Francis Asbury)는 새로 조직된 감리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감리교회 목사들을 여러 교회들에 임명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교회조직을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애즈버리가 “자신이 좋아하지 않았던 설교가들을 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힘든 순회구역들에” 파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교권에 반대하였다.⁸⁾ 1792년 11월 1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총회 때, 제임스 오켈리는, 만약 목사들이 임명받은 목회지에 가기를 원치 않으면, 총회에 어필할 권리를 목사들에게 줘야 한다는 탄원을 냈다. 애즈버리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 탄원을 거절함으로써, 오켈리와 그의 추종자들이 감리교를 탈퇴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총회를 탈퇴한 다음, 1794년 8월에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를 세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본 원칙들”을 채택하였고, 그때부터는 이들 원칙들에 따랐다. 이들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다.
2. 모든 교파와 분파적인 이름을 버리고 “크리스천”(Christian)이란 이름을 사용한다.
3. 성경 또는 신구약성경은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신조이며 충분한 규율이다.
4. 그리스도인의 특성 또는 필수적인 경건만이 교회의 친교와 교인 자격의 유일한 시금석이다.
5. 사적인 판단과 양심의 자유의 권리는 모두의 특권과 의무이다.⁹⁾

오켈리는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된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와 연합하였다. 해가드는 이 운동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나중에(1804년) 후진 지도자들이 이 운동을 더 큰 환원 탄원으로 발전시

8) Earl West, "Republican Methodists," *Gospel Advocate* XC 38(Sept. 16, 1940), p. 891.

9) W. E. MacClenny, *The Life of Rev. James O'Kelly*(Indianapolis: Religious Book Service, 1950), pp. 121-122. 이 책은 초기본의 재판이다.

키는데 강하게 영향을 끼친 31쪽 분량의 소책자를 썼다.¹⁰⁾

오켈리-해가드 운동(The O'Kelley-Haggard Movement)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운동은 스톤-캠벨 운동보다 수년 먼저 일어났다. 둘째, 이 운동의 기본 철학과 사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나중에 이끌고 갈 지도자들을 위해 준비된 길이었다.

뉴잉글랜드 운동(The New England Movement). 웨스트는 “환원의 누룩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버지니아 주에서 감리교인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동안에, 버몬트 주와 뉴햄프셔 주에서는 침례교인들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었다. 엘리야스 스미스(Elias Smith)와 아브너 존스(Abner Jones)가 바로 이 지역의 두 지도자들이었다.”¹¹⁾고 지적한다.

스미스는 코네티컷 주 림(Lyme)에서 1769년 6월 17일 태어났다. 그는 1789년 11월에 설교가로서의 준비를 시작하였다. 1801까지, 그는 그가 설교했던 침례교회의 칼뱅주의 교리들의 몇 가지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와 다른 네 명은 1802년 12월에 모임을 시작하였다.

아브너 존스는 매사추세츠 주 로알톤(Royalton)에서 1772년 4월 28일에 태어났다. 그의 초기 생애는 신앙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1793년 봄에 “그는 회심하였고, 침례교 설교가인 장로 엘리사 랜섬(Elisha Ransom)에게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¹²⁾ 존스는 얼마동안 의학을 연구하였고, 의사로서 일하였다. 그는 1801년에 설교가로 사역을 시작하였고, 버몬트 주 린돈(Lyndon)에 “자유 교회”를 설립하였다.

1803년에 스미스는 존스와 만났고, “그리스도인 총회”(Christian Conference) 때 그들은 교회법을 함께 작성하였다. 1885년 그들은 무익하다는 생각에 총회와 교회법을 함께 버렸다. 1803년 9월 1일 스

10)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의 *An Address to the Different Religious Societies on the Sacred Import of the Christian Name*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가렛트(Garrett)의 책 85쪽을 보시오.

11) West, "New England Movement," *Gospel Advocate*, XC, 40(Sept. 30, 1940), p. 943.

12) *Ibid*

미스는 274명의 구독자들을 모아 『복음 자유 헤럴드』(*Herald of Gospel Liberty*)지를 발행하였다. 그는 그것을 세계 최초의 신앙지라고 주장하였다. 웨스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 뉴잉글랜드 운동은 모든 남녀가 신약성경의 전통을 회복하고 교파주의를 떨리하고자 했던 사실에서 그것의 일차적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이 먼 지역에까지 충분히 활동범위를 넓히지 못했던 것은 당시의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았고, 지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길을 따라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³⁾

이 운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인”(Christian)이외에 다른 이름의 사용을 거부했고, “오직 성경만”을 그들의 권위 있는 책으로 힘써 수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하였다. 스미스와 존스 모두는 그 운동을 시작한 이후 열심히 설교하였으나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결론

이 강의에서 우리는 스톤과 캠벨부자의 때 이전에 있었던 몇몇 주요 운동들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혹 있었을지도 모를 다른 운동들과 함께 이들 운동들은 그들이 그 당시 종교적인 분열에 불만을 품었던 개개인 사상가들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하였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되도록”(요 17:20-221) 해달라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기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들의 양심들을 그들은 오로지 따르고 있었다.

이들 운동들은 다른 훌륭한 지도자들의 더 크고 확대된 활동들의 도래를 위해서 세계를 확실히 준비하였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토론을 위한 주제들

1.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갈 4:4)라고 하신 성경

13) West,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I, p. 17.

말씀의 의미와 내포된 뜻을 토의하시오.

2. “대각성”은 무엇이었는가? 환원운동을 위한 내포된 뜻들은 무엇이었는가?

3. 제임스 오켈리는 누구이며, 환원운동에 공헌한 중요성들은 무엇이었는가?

4. “오켈리-해가드” 운동을 “뉴잉글랜드 운동”과 비교하시오.

제5강

발톤 왈렌 스톤

Barton Warren Stone

환원운동의 시작과 초기성공을 가져다 준 주요 원동력은 발톤 왈렌 스톤(Barton Warren Stone)과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에서 일반적으로 기인된다. 확실히 이들 개혁가들은 환원운동의 시작과 성장에 크게 공헌하였고, 그밖에 많은 사람들도 기여하였다. 우리가 앞 강의에서 언급한 인물들은 환원운동의 탄생과 걸음마 단계에서 중요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었고, 환원운동사를 통해서 배출된 수많은 다른 걸출한 남녀들 또한 환원운동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강의에서, 우리들은 이 역사적인 대하드라마에서 주역을 맡았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드라마에 출연한 인물들은 많았다. 그리고 스톤은, 이 자생 종교 개혁운동, 즉 짧은 미국역사 속에서 발생한 최초의 종교개혁운동에 기여한 위대한 공적들 때문에 신앙의 영웅이 되었다.

탄생과 초기 생애

발톤 왈렌 스톤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들 중에서 태어났다. 다니엘 샐츠(Daniel Schantz)는 다음과 같은 말로 당대의 활기를 기술하였다.

발톤 W. 스톤이 세 살이었을 때, 미국이 탄생하였다.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고 있었고, 다니엘 분(Daniel Boone)은 거친 켄터키 주를 길들이고 있었다. 그

리고 스페인 선교사들은 캘리포니아 주 연안에 정착하고 있었다.¹⁾

국토는 대부분 황야였고, 오하이오 주와 그 주변지역들은 “서부”나 서부 보류지(개척지)로 생각되었거나 그렇게 불리었다.

스톤은 메릴랜드 주 포트 토바코(Port Tobacco)에서 존 스톤(John Stone)과 메리 왈렌 무스그레이브(Mary Warren Musgrave)의 아들로 1772년 12월 24일에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외할아버지를 기념하여 발톤 왈렌(Barton Warren)으로 지어졌다. 삶은 발톤에게 쉽지 않았다. 그는 매우 어렸을 때 형들이 독립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겨우 세살 때 죽었다. 가렛트(Garret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부는 그와는 거리가 먼 축복이었고, 가난은 그의 젊은 시절 내내 따라다녔다. 그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약간의 재산은 이내 고갈되었고, 그는 마치 학교를 그만둬야만 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가능성을 줄곧 지켜본 교장이 그의 등록금납부를 연기해 주었다.²⁾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스톤의 어머니는 가족부양의 책임을 감당하였다. 그녀는 포트 토바코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발톤은 “성장기”를 보냈다.

스톤의 회심

발톤의 초기 목표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고, 후에는 아마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항상 독서를 즐겼다. 그리고 18세 때인 1790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신앙에 관여하게 된 것은 그곳에서였다.

우리가 그의 회심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발톤 왈렌 스톤의 청

1) Daniel Schantz, *Barton W. Stone: A Bright Star*(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Company, 1984), p. 3.

2) Garrett, p. 100.

년기와 초기성년기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세 가지 중요한 현상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 가운데 첫째가 위대한 미국의 개척지였다. 미국개척지의 정착과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 사는 것은 스릴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어려운 삶이었다. 육지의 변하기 쉬운 자연뿐만 아니라 대륙의 원주민들로부터 오는 위험들이 있었다. 성공한 자들은 보통 위대한 추진력과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스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오로지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현상은 당대의 영적 기근이었다. 무신론이 토마스 페인(Thomas Paine)과 볼테르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 만연하였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주목했던 대로 무신론의 전파와 선전에 헌신한 조직들이 있었다. 극소수 사람들만이 성경을 소유할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성경을 구입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설사 성경이 있다하더라도, 독서능력이 부족하였다. 몇 년 후 이런 현상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발톤의 초기생애에서는 사실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신앙운동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것이었고, 이것들 중 몇몇은 생명력이 없었다.

스톤이 직면한 세 번째 현상은 칼뱅주의의 존재였다. 미국에서 지배적인 기독교신학은 그것의 배경에서 볼 때 칼뱅주의였다. 칼뱅주의 신학은 예정과 인류의 완전타락과 같은 교리들을 강조하였고, 하나님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유황불 붙는 지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종교적인 생각의 상당부분이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사랑의 정신에서보다는 두려움의 정신에서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갔다.

스톤이 신앙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환경에서였다. 그는 당시에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웨스트는 스톤의 초기 기독교와의 갈등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룸메이트, 벤 맥레이놀즈(Ben McReynolds)가 자기와 함께 맥그리디(James McGready)의 집회에 참석하자고 하였다. 스톤은 함께 갔다. 메시지는 열정적이었고 강력하였다. 스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일 년간 그는 갈등하였다. 그러

고 나서 그는 다시 맥그리디의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인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그를 집에 오게 하였고, 감리교회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스톤은 1791년 봄, 알라망스(Alamance)에 가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호필즈(Hawfields)의 윌리엄 핫지(William Hodge)로부터 설교를 들었고, 장로교회에 합류하였다.³⁾

스톤의 친구들 가운데 상당수가 목회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회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삼위일체”를 주제로 오렌지 장로회(Orange Presbytery)에서 설교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스톤에게 설교자격이 주어진 것은 1796년 이후였다.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스톤이 켄터키로 이사하기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1798년 목사시험에서, 스톤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신앙고백서⁴⁾를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의 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받으며 채택하십니까?” 이 질문에 스톤은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스톤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규범으로써 성경의 무오설을 믿고 있었다.

개인 릉지 집회

스톤의 목회사역의 초기 몇 해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였다. 처음에 그는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쁘자 낙담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곧 바뀌었다. 안수를 받은 해에, 스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테네시 주를 향해 서부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들 중의 하나를 경험할 켄터키 주로 옮겨갔다. 스톤은 장로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한 안수를 아직 받지 못했고, 1792년에 설

3) West, *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I, p. 20.>

4) 역자 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한다.

교자적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스톤은 안수를 받을 당시 많은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1796년 트랜실바니아 장로회(Transylvania Presbytery)의 모임에서 결국 안수를 받았다. 장로회는 켄터키 주 케인 릿지에서 모였다.

스톤은 두 번 결혼하였다. 가렛트는 엘리자베스 캠벨(Elizabeth Campbell)과의 첫 번째 결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만약 1801년 스톤의 삶에서 가장 큰 일이 케인 릿지 부흥이었다면, 분명히 두 번째 큰 사건은 엘리자베스 캠벨과의 결혼이었다. 그는 이제 28세였고, 이것은 그의 생애에서 맞본 첫 번째 로맨스가 틀림없다. 그는 강도들, 인디언들, 가난, 그리고 칼뱅주의에서 벗어나는데 너무 바빠서 그의 생애에서 젊은 여성들을 만나 사귄만한 시간이 없었다.⁵⁾

엘리자베스는 9년 후에 죽었고, 그의 아들, 발톤 W. 스톤 2세도 마찬가지였다. 스톤은 나중에 쉐리아 윌슨 보웬(Celia Wilson Bowen)과 재혼하였다. 그들은 6명의 자녀들과 49명의 손자손녀들을 보았다. 스톤의 손자손녀들 가운데 두 명은 “미주리 주 한니발의 거리에서 마크 트윈과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었다”고 가렛트는 또한 진술한다.⁶⁾

환원운동사에서 가장 큰 사건들 중의 하나와 더불어 스톤의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들 중의 하나는 확실하게 케인 릿지 집회였다. 1801년 8월에 수천 명의 사람들은 켄터키 주 케인 릿지에 모였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부흥집회들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미국은 큰 신앙부흥을 보도록 되어 있었고, 이것은 이 부흥의 큰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틀림없이 간주되고 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에 대한 추정은 다양하다. 그러나 20,000명에서 30,000명이었다는 추정이 가장 믿을만한 숫자이며, 참석자들은 포장마차나 말을 타거나 걸어서 집회에 참석하였다. 여러 명의 설교자들이 군데군데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들 앞에서 동

5) Garrett, p. 103.

6) *Ibid*

시에 설교를 하였다. 스톤은 복음은 보편적이며, 복음을 믿는 믿음이 구원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설교는 장로교회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교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장로교회의 지도자들을 불쾌하게 하였고, 자기변호를 위해서 소환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 기간 동안에 회심하였다. 이 부흥집회와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면, 이 강의에 소개되고 있는 참고서적들이나 다른 관련서적들을 읽어 주기를 바란다.

스프링필드 장로회

워싱턴 군(郡) 장로회(Washington Presbytery)는 스톤을 소환하였고, 그의 변호를 청문한 후에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이 결과로 스톤과 다른 네 명, 즉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 요한 둔라비(John Dunlavy), 리차드 맥네마르(Richard M'Nemar), 존 톰슨(John Thompson)은 워싱턴 장로회를 탈퇴하여 스프링필드 장로회(Springfield Presbytery)를 설립하였다.

이 시점에서 이들 다섯 명은 장로교회를 떠날 의도를 마음에 전혀 품지 않았다. 느슨하게 조직되고 비공식적인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임원들이나 심지어 “회원” 교회들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그 목적이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믿었던 장로교회의 일부 요소들을 개혁하려고 했던 목회자들의 단체였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장로교회의 칼뱅주의 신학과 사람들에게 부과된 획일적인 신조의 형태를 공격하고 있었다.

일 년도 채 안돼서 그들은 또 다른 장로회를 조직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해체하고 말았다. 그리고 1804년 6월 28일, 그들은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를 발표하였다. 다윗 펄비안스(David Purviance)와 더불어 이미 언급한 다섯 명이 1804년 6월 28일에 이 문서에 서명하였다.⁷⁾ 이것이 스

프링필드 장로회의 최후였다.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해체 후에 그 사람들은 장로교회를 영원히 떠났다. 그것은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가 모든 분파나 교파의 이름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이름을 사용할 것을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ey)에게 제안한지 10년만이었다. 그들이 교회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개 교회가 독립적일 것을 고집하였다. 그들은 얼마동안 성경적인 침례의 형식과 목적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1807년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이 성경적인 침례의 방법이 침수였다고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켰다. 그는 스톤과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켰고, 그들은 1807년 6월에 모두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침례의 형식을 친교의 시금석으로 삼지 않았다.

캠벨과 통합

우리가 다음의 두 강의에서 공부하게 될, 캠벨 부자에 의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시작된 운동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스톤의 운동과 캠벨의 운동은 수년간 서로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1824년 켄터키 주 조지타운에서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웨스트는 말한다.

그 두 운동은 여러 도시들에서, 특히 켄터키 주에서, 나란히 활동하면서, 두 그룹 사이에 서서히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결국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케인 릿지에서 가까운 켄터키 주 밀러즈버그(Millersburg)에는 두 그룹이 모두 있었는데, 이따금 모여서 이야기도

7)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 전문은 웨스트(West)의 『사도전승의 탐색』(*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pp. 26-28에 실려 있다. 역자 주: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의 한글 번역문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http://kccs.info>) 인터넷 홈페이지나 조동호 목사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서진출판사)에 실려 있다.

나누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그들 상호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1831년 4월 24일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그 통합은 곧바로 더 큰 규모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⁸⁾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그 운동이 좀더 분명하고 크게 지평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록 스톤은 알렉산더 캠벨보다 몇 살 손위였지만, 지속해서 환원 운동에 큰 힘을 쏟았다. 스톤은 캠벨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들을 보았고, 캠벨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양보하였다. 스톤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그가 수년 동안 출판하였던 잡지,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를 통해서 역사에 기억 될 것이다.

발톤 W. 스톤은 미주리 주 한니발에서 그의 사위, 캡틴 사무엘 보웬(Captain Samuel Bowen)의 집에서 1844년 11월 9일에 소천 하였다. 그의 시신은 처음 한니발에 묻혔지만, 나중에 켄터키 주 케인 릿지로 이장하였다. 그곳에서 스톤의 위대한 부흥이 진정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에 큰 기념비가 스톤을 기념하여 건립되었다. 그는 그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신약성경 기독교 환원운동의 탐색에 공헌한 대가로 분명히 존경받아 마땅하다.

결론

이 강의에서 우리들은 환원운동의 중요 인물들 가운데 한 분인 발톤 W. 스톤을 공부하였다. 많은 책들이 그와 또 그가 도움을 줘서 시작했던 운동에 대해서 쓰였다. 우리는 스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일련의 인물들보다 먼저 그를 살펴보게 되었다.

스톤은 케인 릿지에서 열린 큰 집회에서 설교하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였다. 그는 많은 교회들이 시작 되는데 영향을 끼쳤고, 나중에는 캠벨의 운동과 자신의 노력들을 합

8) West, I, p. 32.

병하였다. 그들과 수십 명의 다들 사람들이 함께, 거의 운동들이 일찍이 가져보지 못한 때에, 국가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순결성과 단순성을 회복하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였다.

토의 주제들

1. 발톤 스톤의 초기 신앙 갈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한다.
2. 발톤 스톤이 환원운동에 기여한 중요한 공헌들은 무엇인가?
3. 칼뱅주의의 핵심교리들은 무엇인가?
4. 어떻게 칼뱅주의가 발톤 스톤의 생애와 가르침에 영향을 미쳤는가?
5. 안수이전에 주어지는 설교자격과 목사안수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 교단들이나 교회들에 알아보고 발표한다.
6. 어떤 사건들이 스톤과 캠벨의 운동들에 통합을 가져다주었는가?

제6강

토마스 캠벨

Thomas Campbell

우리는 환원운동이 한두 사람의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환원의 원리들은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소속해 있던 여러 개신교 교파들의 속박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환원운동을 잘못 알고 왔던 사람들은 토마스 와 알렉산더 캠벨 부자가 환원운동을 시작하였고, 이끌고 왔으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제임스 오켈리, 라이스 해가드, 아브너 존스, 엘리야스 스미스, 발톤 스톤이 이 운동에 기여했던 공헌들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토마스 와 알렉산더 캠벨 부자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높은 학식과 깊은 영성 그리고 특출한 지도력 때문에 환원운동의 중요한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환원운동의 시작과 성장을 그들의 공적으로 돌리는 것은 그들의 두드러진 지도력 때문이다.

이 엄청난 임무를 위한 그들의 준비는 그들이 미국 땅에 발을 내딛기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 강의와 이어지는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킨 중요한 훈련(공식교육과 “입학이 힘든 학교” 모두에서)의 일부를 소개할 것이다. 지금의 이 강의에서는 아버지 토마스 캠벨을 다룰 것이고,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뛰어난 아들 알렉산더의 생애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토마스 캠벨: 탄생과 초기 생애

토마스 캠벨은 아키발드 캠벨(Archibald Campbell)의 장남이었고, 아래로 제임스(James), 아키발드(Archibald), 그리고 에노스(Enos) 세 명의 동생들이 있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의 『토마스 캠벨 장로의 회고록』(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에서 그의 아버지의 뿌리를 스코틀랜드 아르가일(Argyle)로 추적해 올라간다.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렉산더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의 할아버지, 아키발드 캠벨은 다이얼레이크 (Dyerlake) 숲 가까운 아일랜드 다운(Down) 군에서 태어난 제임스 캠벨의 아들이었다. 그는 105살까지 장수하였다.¹⁾

알렉산더는 그의 할아버지가 병역을 마친 후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²⁾고 부연하고 있다. 따라서 토마스 캠벨은 아일랜드 다운즈(Downs) 군에서 1763년 2월 1일 다운(Down) 군에 태어났다. 그는 “엄한 비판자요, 친절한 교관이며, 헌신적인 학자”로서 묘사되었다.³⁾ 알렉산더는 그의 훈련과 개인적인 영적 활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가족 훈련과 규율은 특별히 교훈적이었고, 성경적이었으며, 엄격하였다. 브라운의 교리문답(Brown's Catechism)과 함께 성경은 줄곧 몇 명뿐인 그의 가족의 매일의 공부와 매일의 암송 교재였다.⁴⁾

토마스의 첫 번째 소망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는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그의 목표는 바뀌었고, 목회자가 되는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캠벨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를 믿게 하는 습관적인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 웨스트는 진술한

1) Alexander Campbell, *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Cincinnati, Ohio: H. S. Bosworth, 1861), p. 7.

2) *Ibid*

3) West, *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I, 40.

4) Campbell, p. 9.

다.5)

토마스는 잘 훈련된 사람이었다. “캠벨은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1451년에 세워진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대학교를 3년 간 다녔고, 영국교회에서 성장한 후에 가입했던, 반공민과 분리주의자 장로교회 휘트번(Witburn) 신학대학원에서 5년 동안 공부하였다.”고 가렛트는 기술하였다.6) 캠벨의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많은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캠벨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더 살펴보게 될 것이다.

토마스는 반공민과 분리주의자 장로교회의 소속이었다고 기술된다. 이 독특한 종교적 변종이 어떻게 유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꽤 복잡하다. 그러나 얼 웨스트(Earl West)가 그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어서 우리는 그가 쓴 이 부분에 관한 설명에 근거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토마스 캠벨이 그 특이한 장로교회 분파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종교적인 분열들에 대한 염증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웨스트는 그 분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주의 교파에 소속하였다. 그러나 교회내의 지도층은 온건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분열이 조장되고 있었고, 연방의회가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설교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성직임명권을 되찾아갔던 1712년에 고조되었다. 같은 이슈에 관해서, 총회는 빈자리가 장로로 채워져야 했을 때, 선출은 “개신교도 장로들인 후계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포한 결정으로 1731년에 행동을 취하였다.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그들의 권리들을 사실상 양도하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네제르 에르스킨(Ebenezer Erskine)과 다른 세 사람의 지도아래 강하게 반대하였다. 에르스킨은 즉시 목회사역에서 쫓겨났다. 다음 해에 그와 다른 사람들은 준 장로회(Associate Presbytery)를 구성하였고, 분열이 태동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운동에 뒤떨어져 있었다. 총회는 분리주의자 교회가 120개 교회당들과 이전에 스코틀랜드의 기성교회에 소속했던 10만 명의 교인들을 갖고 있다고 1765년에 선언하였다. 1800까지 스코틀랜

5) West, I, p. 39.

6) Garrett, p. 132.

드에는 200개의 분리주의자 교회들이 있었다. 그러나 분리주의자들의 행운은 오랫동안 길게 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분열은 그들의 특색이었기 때문이다. 1789년에 분리주의자들은 맹세를 하는 시민들의 문제에 관해서 공민파와 반공민파로 나뉘었다. 도시들의 시민들은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종교를 지지하도록 사람들을 묶는 맹세를 요구하였다. 맹세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은 반공민파들이었다. 분리주의자 교회의 양 분파들은 1799년에 다시 신성연맹과 계약(Solemn League and Covenant)이 친교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새 빛(New Lights)파와 옛 빛(Old Lights)파로 나뉘었다. 토마스 캠벨은 옛 빛 반공민파 분리주의자 장로교회에 소속하였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인 분열에 아주 익숙해 있었다.⁷⁾

토마스가 분열된 장로교회에서 겪었던 경험은, 그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겪게 되었을 때,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

미국에로의 이주

토마스 캠벨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에게 항해 여행을 권했고, 알렉산더의 권유에 못 이겨 미국으로 건너갔다. 처음에 그는 잠시만 미국에 머물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일랜드로 돌아오세요.” 라고 알렉산더가 아버지에게 부탁했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⁸⁾ 만약 그의 건강이 호전된다면, 가족도 미국에 건너가 살 것을 기대하였다.

토마스는 44세 때인 1807년 봄에 펜실베이니아 주에 도착하였고, 도착 즉시 그 특유의 소속 장로교 교단의 북미주 노회(Synod of North America)를 찾아갔다. 알렉산더는 “토마스가 펜실베이니아 주에 도착했을 때, 노회는 그를 진심으로 영접하였고, 그에게 찰티엘즈 장로회(Presbytery of Chartiers)에 추천하였다.”⁹⁾고 적고 있다. 토마

7) West, I, p. 43.

8) *Ibid* I, p. 44.

9) Alexander Campbell, *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Cincinnati, Ohio: B. S. Bosworth, 1861), p. 10.

스는 북미주 노회에 설교자격을 신청하였다. 그는 그의 설교자격증을 서부 펜실베이니아 주 찰티엘즈 장로회로부터 받고 설교를 시작하였다. 웨스트는 토마스의 초기 미국에서의 활동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토마스 캠벨의 그 다음 2년간의 삶은 찰티엘즈 장로회의 의사록을 통해서 꽤 쉽게 추적될 수 있다. 의사록들에 캠벨의 이름이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 1807년 5월 16일 토요일의 의사록은 캠벨이 처음으로 찰티엘즈 장로회에 가입되었다고 적고 있다. 1807년 6월 30일과 7월 1일 회의에서, 토마스 캠벨은 7월 둘째와 셋째 주일에 버팔로(Buffalo), 넷째 주일에 마운트 프레전트(Mount Pleasant), 그리고 8월 첫 주일에는 피츠버그(Pittsburg)에 설교를 배정받았다. 그래서 캠벨은 일요일마다 설교하느라 바빴다.¹⁰⁾

토마스는 주의 깊게 성경을 연구하였고,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그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장로교의 특정 교리들을 부인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1808년 9월 13일 장로회로부터 해임되었다. 한편, 토마스는 1808년에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국으로 건너오라고 일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들은 다음 강의에서 알렉산더와 나머지 가족들이 아일랜드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다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토마스가 찰티엘즈 장로회와 갈라서는 초기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선언과 제언”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은 환원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문서였다. 토마스가 장로회와 겪는 갈등은 짧은 글로 다 설명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웨스트의 책에 설명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¹¹⁾ 1807년 10월 27일, 토마스는 “신조들과

10) *Ibid.*, p. 8.

11) *Ibid.* I, p. 44ff. 웨스트는 토마스가 찰티엘즈 장로회와 갈라지면서 누적되

신앙고백서들은 단지 인위적인 권위일 뿐이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이 비난들을 해명하려고 했지만, 그의 고소인들은 요지부동이었다. 1808년 2월 9일, 그는 회의석상에 나타났다. 웨스트는 그의 해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선별된 자료를 제공한다.

믿음에 관해서 본인은 사람의 영혼이 그것의 주제라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은 그것의 저자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의 규칙과 근거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그것의 대상이시다. 하나님의 용서, 수용과 도움, 또는 현재의 은혜와 차후의 영광은 그것의 직접적이고 적절하고 공식적인 목적이다.

신앙고백서와 증언들에 관해서 본인은 교회가 진리를 그와 같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장을 모두 받으며,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증언은 그러한 목적을 인증한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들의 증언이 요구하는 한 그것들을 친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고 보장받을 만한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나는 결코 그들을 반대해 오지 않았다.¹²⁾

논쟁은 겨울과 여름 내내 지속되었다. 토마스는 1808년 9월 18일에 찰티엘즈 장로회를 정식으로 탈퇴하였다. 토마스는 그 상황을 놓고 고민하였다. 특히 신앙의 차이가 그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괴로워했다. 캠벨과 그의 활동에 동조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펜실베이니아 주 워싱턴 군에서 가까운 아브라함 알터즈(Abraham Altars)의 집에서 만났고, 토마스는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Where the Bible speaks, we speak; where the Bible is silent, we are silent.)는 유명한 말로 그의 연설을 마쳤다. 이것은 미래의 환원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다.

이들 사건들의 결과로써 토마스는 다수의 다른 사람들의 승인과 도움을 받아 교회에서의 분열과 연합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

는 수개월간의 사건들을 매우 간결한 방법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 책에 인용된 그의 글들은 허락을 받고 옮긴 것들임을 밝힌다.

12) *Ibid*, I, pp. 45-46.

는 입장을 정리하려는 일종의 시도으로써 “선언과 제언”을 썼다. 이 중요한 문서는 너무 길어서 우리가 여기에 인용할 수 없지만, 알렉산더 캠벨이 그의 아버지를 회고한 글들 가운데 하나만은 많은 곳에서 발견되어질 것이다.¹³⁾ 아무도 이 문서가 환원운동의 미래에 줄 충격을 알지 못했다. 또 그것이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 길은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문서의 작성에 관여했던 사람들만큼은 성경만이 그들의 신앙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안내서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였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이 결정은 해가 거듭되는 동안 다툼과 마음의 갈등을 가져다준 원인이 되었다.

레로이 가렛트(Leroy Garrett)는 “선언과 제언”의 주요 원리들을 10가지로 요약하였는데, 그의 요약은 우리가 그 문서의 폭을 감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가렛트가 요약한 10가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1. 분열은 무서운 죄악이며, 교회의 임무를 방해한다.
2. 교회내의 분열에 좀더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과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일이 극복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3. 분열들은, 대부분, 본질들의 문제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다.
4. 그리스도는 연합의 유일한 근원이며, 그분의 말씀은 유일한 시금석(terms)이다.
5. 교회연합에 대한 소명은 비합리적이지 않고, 그 시기 또한 나쁘지 않다.
6. 예수께서 교회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수단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
7.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8. 우리는 피차 교제를 시작해야 하며, 우리자신의 당파에 대한 관심을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합한다면 우리들은 승리할 것이다.
9. 전쟁으로 국가들이 황폐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쪼개진 교회

13) Alexander Campbell, pp. 25-109.

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10. 연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단지 작은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구한다. 전체 교회의 집단적인 후원들은 우리에게 성공을 보증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⁴⁾

비록 이 요약문들이 “선언과 제언”에 대한 가렛트의 해석들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그 문서의 정신과 의도를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다.

환원운동의 태동

비록 토마스 캠벨이 이 시점에서 환원운동을 실제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사건들은 해가 거듭되는 동안 일어날 사건들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스톤과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환원운동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 가운데서도 알렉산더 캠벨은 눈여겨볼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십 년에 걸쳐 많은 다른 사람들도 환원운동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원운동은 시작되고 있다고 말해야 참으로 옳을 것이다.

토마스 캠벨은 장수하였고, 환원운동이 지속되는 동안 매우 긴밀하게 일하였다. 토마스 캠벨은, 88세 때인 1851년 6월 1일, 베다니 예배당에서 고별설교를 전하였다. 그때 그는 눈이 멀었는데, 펜들톤(W. K. Pendleton)이 그의 설교를 글로 받아 적었다. 본문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이었다.

토마스 캠벨은, 그의 91세 생일을 단 한 달 남겨놓은 채, 1854년 1월 4일 수요일에 죽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냈다.

그렇게 그분은 평범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자기 위치에서 자주 더 커지는 것처럼, 그분이 공경했고 찬양 받아 마땅하신 구

14) Garrett, pp. 146-150.

세주의 품안에 영혼을 부드럽게 내어 맡길 때까지, 그렇게 그분은 믿음과 희망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났습니다.¹⁵⁾

결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토마스 캠벨의 생애를 마감한다. 그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는 위대하고 선한 사람이었으며, 주님을 사랑하였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한 분열된 종교적 상황에 처한 설교자 신분에서 사람들이 성경말씀의 유일한 권위에 복종하도록 요청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오로지 영원하신 분만이 이 사람의 공적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주님의 대변자였을 뿐 아니라, 환원운동의 가장 위대한 정신들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냈고, 또 그의 아들 알렉산더의 인품에서 초창기 미국의 가장 날카로운 정신들 가운데 하나를 생산해 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이 사람 알렉산더와 환원운동사에서 그가 맡았던 역할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토의 주제들

1. 토마스 캠벨의 초기 생애가 그에게 그와 다른 환원운동 지도자들이 수행하게 될 위대한 임무를 준비하게 한 방법들을 논의하시오.
2. 토마스 캠벨이 장로교회와 무슨 관계를 가졌으며, 어떻게 장로교회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는가?
3. 찰티엘즈 장로회는 무엇이며, 토마스 캠벨과 무슨 관계에 있었는가?
4. “선언과 제언”은 무엇이며, 그것의 핵심 내용들은 무엇인가?

15) Alexander Campbell, pp. 232-233.

5. 토마스 캠벨의 생애가 환원운동의 시작에 무슨 영향을 끼쳤는가?

제7강

알렉산더 캠벨

Alexander Campbell

앞에서 우리는 토마스 캠벨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얼마간 공부를 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만큼,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환원운동에서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고, 심지어 더 큰 힘을 발휘할 인물이었다.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

준비 단계

알렉산더 캠벨은 북아일랜드 출생이었다. 그는 토마스 캠벨과 그의 아내, 제인 콜네이글(Jane Corneigle)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토마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제인은 프랑스 위그노(French Huguenots)의 후손이었다. 그녀의 부모들은 토마스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골수 칼뱅주의자들이었다. 가족들이 미국에 건너간 토마스와의 합류하려고 시도한 첫 번째 때에 배가 파선되어 캠벨 가족의 기록들이 상당수 분실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가족사항들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출생한 것은 1786년에서 1788년쯤으로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웨스트(West)는 “연도가 결코 확정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 동안에도 알렉산더 캠벨이 1786년 6월에 태어났다는 사실 쪽에 더 큰 증거의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¹⁾고 적고 있다.

알렉산더는 심신이 탁월하게 단련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통찰력

1) West, I, p. 39.

이 날카로운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며, 우리들의 비할 데 없는 신앙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도록 운명 지어졌다. 알렉산더와 같이 명석한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의 삶의 모두를 학업에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경우는 다르다. 사실은 그가 읽고 공부하고픈 욕망을 실제로 발현하기까지 수년이 흘렀다. 데이브 샐츠(David Schantz)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젊은 알렉산더는 책이나 학교에 별 관심이 없었다. 시골의 암소는 그가 나무 아래서 즐기고 있는 동안 그의 프랑스어 책을 먹어 치어 버렸다. 오히려 그는 낚시와 수영과 새 사냥과 같은 야외활동을 좋아했다....

알렉산더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책과 사상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는 매일 좋은 책들을 읽고 깨우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노트에 옮겨 적곤 했다. 그는 일분에 한 구절의 비율로 시들과 성경말씀들을 암송하였다....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는 학교수업에서 그의 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풀이 무성한 들판을 걷기도 하고, 명상도 하며, 영적인 경험을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기 시작하였다.²⁾

알렉산더의 부모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을 그에게 시켰다. “알렉산더 캠벨의 위대함은 결코 적지 아니한 부분이 그의 훌륭한 부모에게서 찾아질 수 있다. 토마스 캠벨은 엄한 비판자요, 친절한 교관이며, 헌신적인 학자였다.”³⁾고 웨스트는 적고 있다. 알렉산더가 그와 같이 예리한 지력을 발현한 것은 이와 같은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비범한 암기력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그에게 해가 거듭되는 동안 엄청난 보상을 주었다. 그는 성경구절과 문학작품의 훌륭한 문구들을 암기하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습득한 엄청나게 폭넓은 지식에 크게 감명을 받게 될 것이었다.

알렉산더의 사상에 적지 아니 영향을 준 사람들 가운데는 할테인

2) Daniel Schantz, *Alexander Campbell: Restoration Nobleman*(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Co., 1984), pp. 4-5.

3) West, I, p. 40.

들(Haldanes)과 그레빌 어빙(Greville Ewing)이 있었다. 우리는 이들 위대한 사상가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들은 이들 초기 환원가들의 사상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가렛트와 웨스트 및 다른 많은 환원운동사의 저자들은 이들과 당대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영국교회를 떠났고, 교파적 배타주의의 흐름과 그들이 비성경적인 사상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지하려는 노력에 새롭게 헌신하였다. 제임스와 로버트 할데인(James and Robert Haldane) 그리고 존 그라스(John Glas)와 그레빌 어빙(Greville Ewing)은 알렉산더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가렛트는 이것이 알렉산더에게 영향을 준 많은 분야들을 열거한다.

매주 성만찬에 대한 강조 외에, 캠벨에게 준 어빙의 영향은 이들 개혁의 요소들, 즉 그들의 시대에는 참으로 흔치 않았던 다음과 같은 모든 것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사제들의 신경장조보다는 성경말씀 그 자체에 대한 헌신; (2)교회정치적 독립적이거나 회중적인 형태; (3)사제들의 특권들과 위엄들의 거절과 더불어 평신도 목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강조; (4)개교회의 복수 장로제; (5)상호 나눔과 덕세움의 실천(어빙의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매주일 모임을 가졌다); (6)믿음이 초자연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견해, 사람의 마음은 물론 그의 지성에 있는 호소⁴⁾

따라서 캠벨은 일찍이 미국에 있는 아버지와 합류하기 전에 그의 사상의 상당부분이 “성경에의 복귀”로 귀착될 그와 같은 운동을 향해서 이미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 건너오기 전에 사실상 장로교회를 떠났다.

미국에로의 이주

우리가 앞 강의에서 지적한대로, 토마스 캠벨이 미국에 먼저 오긴 했지만, 알렉산더는 이미 그의 아버지에게 그 당시 미국으로 이주하

4) Garrett, p. 169.

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따라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토마스는 건강이 나빴고, 그런 이유로, 의사들은 그에게 항해여행을 권했고, 알렉산더도 강권함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만일 이 여행이 그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한다면, 되돌아 올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만약 건강상태가 호전된다면, 그는 가족들이 차후에 미국에 건너오기를 원했다.

앞 강의에서 설명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후, 토마스는 1808년에 가족들에게 미국으로 건너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아일랜드에서의 상태들이 그의 가족들의 항해를 6개월이나 지연시켰다. 천연두가 번졌다.

1808년 9월 28일, 그들은 배를 탔지만, 큰 폭풍으로 출발이 지연되었고, 드디어 그들이 바다로 나갔을 때는 파선으로 고통을 겪었다. 알렉산더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알렉산더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미국으로 건너갈 다른 기회들을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 알렉산더는 글라스고우(Glasgow)대학교에 입학하여 헬라어와 논리학 그리고 다른 교양 과목들을 공부하였다. 이 시기는 그에게 매우 유익했다. 왜냐하면, 그는 생애의 이 전환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로 인해서 그의 사상이 진일보하였기 때문이다.

웨스트는 “1809년 7월 31일 캠벨은 글라스고우를 떠나 그린노크(Greenock)로 갔다. 4일 후 그와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떠나는 라토니아(Latonia)호에 승선하였다. 이때의 여행은 순조로웠고, 배는 9월 29일 금요일에 뉴욕에 도착했다.”⁵⁾고 적고 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뉴욕 구경을 하면서 머물다가 토마스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필라델피아를 지나 그들이 살게 될 워싱턴 군을 향해서 갔다. “토마스 캠벨은 그들의 목적지에서 대략 3일 정도 걸리는 곳에서 가족들이 탈 말들을 준비해 가지고 2년 만에 그의 가족을 만났다.”⁶⁾

5) West, I, p. 52.

6) Garrett, p. 174.

방향을 위한 갈등

토마스 와 알렉산더는 그들이 다시 만난 후에 많은 것을 논의하였다. 두 사람 모두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들에서 급격한 변화들을 겪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모르고 지냈다.

알렉산더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는 “워싱턴 군(郡) 그리스도인 협회회의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of Washington)으로 알려진 문서를 작성해 놓고 있었다. 교정본들이 인쇄소에서 막 찍혀 나왔고, 토마스는 그것들을 알렉산더에게 보여 주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일랜드에서 알렉산더는 그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다다랐던 것과 동일한 결론들의 많은 부분에 도달하였었다.

토마스의 “선언과 제언”을 읽고 난 후 알렉산더는 평생을 설교가로 살겠다는 그의 결심을 그의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1809년까지 캠벨 부자는 환원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계단들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선언과 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토마스가 알게 된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알렉산더는 브러쉬런 교회(Brush Run Church)가 들어설 자리에서 1810년 9월 16일 첫 설교를 하였다. 1811년 3월 12일 알렉산더는 꽤 유복한 사람의 딸 마가렛 브라운(Margaret Brown)과 결혼하였고, 그들의 첫 딸이 1812년 3월 13일에 태어났다. 알렉산더의 장인 존 브라운(John Brown)은 알렉산더와 마가렛에게 그들의 집으로 저택을 물려주었는데, 나중에 그 집에서 “버팔로 신학원”(Buffalo Seminary)이 개교되었고, 폐교되었다가 나중에 베다니 대학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딸 제인(Jane)의 출생은 알렉산더에게 유아세례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는 곧 유아세례의 비성경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1812년 6월 12일 알렉산더와 다른 여섯 사람들은 침례교 설교가 마티아스 루스(Mattias Luce)에게 죄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를 받

았다.

우리는 이미 브러쉬 런 교회를 언급했다. 그곳에서 알렉산더는 1810년 9월 16일 처음으로 설교를 하였다. 그들은 그곳에 통나무로 교회당을 지었고, 그곳은 환원운동의 시작을 위한 집회소가 되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캠벨 부자와 그들과 뜻을 같이했던 동지들이 1813년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이 협의회와의 관계는 몇 년 지속되지 못했다. 1816년 알렉산더는 친구약 두 전서의 관계를 상당히 연구한 끝에 그의 유명한 “율법에 관한 설교”(Sermon on the Law)를 발표하였다. 이 설교는 성장하는 환원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웨스트는 “그 설교의 영향을 침례교 주둔지에 떨어진 포탄”⁷⁾에 비교하였다.

1823년 여름에, 그들은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에서 탈퇴하였다. 1820년 8월 30일 마호닝 침례교회 협의회(Mahoning Baptist Association)가 태동했다. 알렉산더 캠벨이 새로운 교파의 시작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캠벨과 그와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은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에 가입하였고, 1830년 어느 시점에까지 이 협의회에 회원들로 남아 있었다.

이것이 신약성경으로 환원을 촉구하는 자들을 위한 마지막 탈퇴가 되었다. 이들 20년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의 환원운동은 상당히 성숙하여졌다. 그러나 이후의 운동은 훨씬 더 성숙해 지도록 되어 있었다.

알렉산더 캠벨의 공헌

이 기간에 이루어진 환원운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캠벨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유능한 작가들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왔다. 우리는 다만 19세기 초기 절반 동안에 이루어진 환원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알렉산더 캠벨의 주요 공헌들을 요약하고자 하

7) West, I, p. 63.

며,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알렉산더가 공헌한 특별한 업적들과 특징들에 관해서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으로써의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뛰어난 학자요, 저술가요, 사상가였다. 그는 근면하게 일하였고, “매일 아침 4시부터 밤 10시까지 꾸준하게 일하였다.”⁸⁾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그에게 배웠던 학생들은 한결같이 교수로서 설교가로서 그의 명석한 지력과 그의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

토론가로서의 알렉산더. 캠벨은 매우 능숙하고 성공적인 토론가였다. 환원운동의 초기 성공의 상당부분이 그가 주관했던 대 토론들 덕분이었다. 다섯 번의 대 토론들은 그의 공적이었다. 1820년 6월 19-20일, 캠벨은 장로교 목사인 존 워커(John Walker)와 침례를 주제로 토론대회를 열었다. 이 토론은 침례의 주제에 관한 가르침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1823년 그는 침례를 주제로 유아세례의 비적절성을 강조하면서 또 한 번 장로교인 맥칼라(M. L. McCalla)와 만났다. 세 번째 토론은 명석한 무신론자, 존 오웬(John Owen)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토론은 1828년 2월에 열렸다. 네 번째 토론은 가톨릭교회의 주교 퍼셀(Purcell)과 있었다. 그들은 캠벨이 가톨릭교회의 기초와 그것의 성직위계제정지와 교리들을 공격했던 총 7가지 명제들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1843년 캠벨은 장로교 목사, 라이스(N. L. Rice)와의 또 다른 토론을 주관하였다.

저자와 편집자로서의 알렉산더. 캠벨은 매우 다작한 저술가요 유명한 편집인이었다. 그는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그의 책들을 여기에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들은 아마도 그가 1820대 초부터 편집도 하고 대단히 많은 글을 쓰기도 했던 신앙지들이었을 것이다. 1823-1829년, 그는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지를 편집하였다. 이 월간지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었으나, 사람들은 그가 탈퇴한 교파의 침례교인들과 그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크리스천 뱍티스트』지는 폐간되었다. 1830년부터 1866년

8) *Ibid.*, I. p. 57.

까지 그는 그 자체로 놀라운 저널리즘의 시도인 『밀레니얼 하빈저』(Millennial Harbinger)를 편집하였다. 이 월간지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환원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캠벨은 이 월간지에 매우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글을 썼다.

교육가로서의 알렉산더. 우리는 이미 알렉산더 캠벨이 1818년 1월에 그의 저택에서 버팔로 신학원을 개교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나중에 1841년에 그는 베다니 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베다니 대학 또한 그의 저택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였다. 지금도 이 대학은 존재하며, 제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자회는 이 운동에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교단이다.

알렉산더 캠벨의 노년기

알렉산더 캠벨이 한만큼 중요하게 환원운동에 영향을 끼친 사람의 거의 없다. 그는 미국 크리스천 선교사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의 시작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 부분은 다음의 두 강의에서 좀더 설명되어질 것이다. 그는 교회를 세우며, 이 위대한 운동에 참여한 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하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들을 훈련시켜 그가 자신의 생애를 바쳐 헌신한 임무를 계속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종파들의 종교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높이 추앙 받았고, 폭넓고 다양한 사회, 정치, 종교 문제들에 관해서 연설할 수 있었다. 아마도 알렉산더 캠벨이 환원운동에서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들과 공헌들 가운데 한 가지는 캠벨 부자와 발톤 스톤이, 그들 모두가 누렸던 성장을 크게 강화시켰던, 그들의 위대한 운동들을 통합했을 때 인식되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1866년 3월 4일 일요일에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죽었다. 그의 서거는 그가 발전을 위해서 도왔던 전역의 형제들을 슬픔에 빠뜨렸다. 비록 그가 설교가로서 그의 사역의 대가로 결코 어떠한 사례금도 받지 않았지만, 그는 부유

한 삶을 살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놓고 죽었다.

결론

이 강의에서 우리는 알렉산더 캠벨의 삶과 사역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는 자신의 삶의 혼신의 힘을 “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ible)는 교회운동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다 썼다. 그는 위대한 인간이었으며, 그가 믿었던 것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었다.

우리는 그의 사역이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어 미국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하기를 원했던 헌신한 다른 지도자들과 합류하였다. 오로지 영원하신 분만이 그의 영향력을 영원토록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토의 주제들

1. 할데인에 관해서 읽고, 그들이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이유들을 수업시간에 발표한다.
2. 알렉산더가 미국으로 항해를 시도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주변 사건들을 논의하시오.
3. 알렉산더와 그의 아버지 토마스가 피차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도달했던 종교사상의 변화들은 무엇인가?
4.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는 무엇이며, 왜 그것은 캠벨 부자에게 중요하였는가?
5. 알렉산더 캠벨이 환원운동에 기여했던 주요 공헌들을 논의하시

오.

제8강

지도력의 확대

The Broadening Leadership

앞의 세 강의들에서는 환원운동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세 사람을 집중 조명하였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지도력의 배턴을 이어받았고, 환원운동 초창기에 그것의 나아 갈 길을 지시하였다.

환원운동이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어야 했으며, 돕도록 장려되었다. 사람들은 이어지는 수십 년 동안 환원운동의 이념들과 활동들을 다듬어 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환원운동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다수의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만이 위대한 활동가들이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들 이외에도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터 스코트(Walter Scott), W. K. 펜들톤(W. K. Pendleton), 모세 라드(Moses E. Lard), J. W. 맥가비(J. W. McGarvey), “래쿰”(Racoon) 존 스미스(John Smith)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들이다. 그들은 전임자들이 시작해 놓은 환원운동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월터 스코트, “금언”

1818년 7월 7일 월터 스코트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국가가 독립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여기저기 문제가 많았다. 미시시피 강까지만 답사가 된 상태였고, 서부(또는 서부 보류지)는 오하이오 주에

편입된 영토를 포함하였다. “윌터 스코트의 사역이 없었다면, 캠벨 부자의 업적은 곧 잊혔을지도 모른다.”¹⁾고 말한다.

훌륭한 작가였던 윌터 스코트 경과는 구별되는 윌터 스코트는 1796년 10월 31일 스코틀랜드 덤후라이셔어(Dumfriesshire)에서 태어났다. 그는 10명의 아이들 중의 하나이었다. 맥스 워드 랜달(Max Ward Randall)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윌터는 5남5녀 중의 한 아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음악교사였고, 그의 부모들은 장로교인들이었다. 그 교회에서 아이들은 조심스러운 교육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감성을 지닌 영적인 여성이었다.

대학교 교육은 종종 부자들에게 국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들은 그들의 재산을 털어 그에게 에든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그곳에서 그는 장로교 목회를 준비하였다.²⁾

앞에서 언급한대로, 윌터는 1818년에 미국으로 건너왔고, 삼촌의 후원을 받았다. 그의 양친 부모들은 한 달 간격으로 1821년 죽었다. 윌터는 일 년 정도를 뉴욕에 머물다가 나중에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로 이사하였다. 거기서 그는 조지 포레스터(George Forrester)를 만났는데, 그는 스코트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포레스터는 그라스(Glas)와 샌더만(Sandeman)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스코트는 그라스와 샌더만의 가르침들에 영향을 받고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수용하였다.

스코트는 피차 친구였던 로버트 리차드슨(Robert Richardson)을 통해서 알렉산더 캠벨을 만났다. 이들 두 사람이 서로 존경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동시적이었다. 스코트는 곧 (아마 캠벨이 사는 곳에 가까운) 오하이오 주 스투벤빌(Steubenville)로 이주하였다. 그는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와 교류하였고, 한 동안 협의회회 전도자로 섬겼다. 스코트는 명석한 연설가였으나,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었다. 환원운동

1)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Cincinnati, Ohio: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72), p. 97.

2) Max Ward Randall, *The Great Awakenings and the Restoration Movement*(Joplin, Mo.: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3), p. 225.

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스코트는 신앙지, 『크리스천 에반젤리스트』(*Christian Evangelist*)를 창간하였고, 수년간 편집도 하였다. 그는 자신이 도와 이름을 붙인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지에 기고하였다. 캠벨은 그것을 크리스천(*Christian*)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으나, 스코트가 캠벨을 설득하여 그것에 “뱍티스트”(Baptist)를 덧붙이도록 하였다. 침례교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 스코트는 “필립”(Phillip)이란 필명으로 『크리스천 뱍티스트』지에 글을 실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캠벨과의 관계가 필립 멜란히톤(Phillip Melancthon)이 마르틴 루터와 사귀었던 관계와 비슷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캠벨과 스코트는 매우 다른 사람이었다. 로버트 리차드슨은 두 사람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이 뛰어난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들은, 말하자면, 상호 보완적인 것이었고, 그것들의 조화로운 혼합으로 그들의 사회에 서로 독특한 기쁨을 선사하는 완전함과 명석함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었다. 따라서 캠벨이 겁이 없고, 자립적이고, 확고한 성격의 소유자인 반면에, 스코트는 본래 겁이 많고, 숙기가 없었으며, 유연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캠벨이 차분하고, 꾸준하고, 신중하였던 반면, 스코트는 흥분을 잘하고, 번덕스럽고, 허둥대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른 특성들의 혼합은 그들을 훌륭한 사역 팀을 만들었다. 앞에서 스코트를 “금언”(Golden Oracle)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별명은 그의 것이 되었다. 그 이유는 스코트가 기독교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이라고 강하게 믿었고, 또 그는 그것을 “금언”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이다.

스코트는 능력 있는 부흥강사였다. 알렉산더 캠벨이 더 크고 더 넓은 그림을 보았다면, 스코트는 복음의 다양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스코트는 매우 일찍이 다섯 부분들의 구원의 계획들을 동일시 할 수 있었다. 그는 집회에서 사용할 “다섯 손가락” 훈

3) Robert Richardson, *Memoirs of Alexander Campbell*(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Co., 1897), I. p. 510.

련을 개발하였다. 그의 다섯 가지 요소들은 믿음, 회개, 침례, 구원, 그리고 성령이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청중에게 파고들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집에 가서 그들의 부모들에게 그것을 외워 보였다.

스코트는 세 차례 결혼하였다. 그는 처음 두 아내와 사별하였다. 그는 1823년 피츠버그 가까운 곳 출신의 사라 휘셋(Sarah Whitsett)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1849년에 죽었다. 약 일 년 후에 그는 켄터키 출신의 애니 앨렌(Annie B. Allen)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1854년에 죽었다. 그는 켄터키 출신의 부유한 과부, 엘리자 샌디지(Eliza Sandige)와 세 번째 결혼을 하였다.

스코트는 저자이기보다는 설교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권의 유익한 책들을 썼다. 그는 자신이 『에반젤리스트』(The Evangelist)라고 부른 신앙지를 편집하였다. 스코트는 65세 가까이 살았고, 독립전쟁의 두려움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는 1861년 4월 23일 화요일에 죽었다. 캠벨은 그의 죽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나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나에게 있어서, 어떤 죽음도 우리가 깊이 사랑했고 높이 평가했던 형제, 월터 스코트의 이것보다 더 갑작스럽고 더 허망하게 꺾전을 때린 일은 없다. 또 어느 누구도 이보다 더 부드러운 동정심과 유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⁴⁾

W. K. 펜들톤(W. K. Pendleton). 환원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또한 사람의 지도자는 윌리엄 김브루 펜들톤(William Kimbrough Pendleton)이었다. 줄여서 W. K. 펜들톤이라 부른다. 웨스트는 그를 “남북전쟁이전의 설교가들과 개척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⁵⁾ 지적한다. 그리고 “확실히 그보다 재능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⁶⁾고 부연 한다.

제임스 디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에 의하면, “윌리

4) Alexander Campbell, "Elder Walter Scott's Demise," *Millennial Harbinger*, Series V, Vol. IV, No. 5(May, 1861), p. 296.

5) West, I, p. 89.

6) *Ibid*

엄 김브루 펜들톤은 1817년 9월 1일, 버지니아 주 루이사(Louisa) 군에서 태어났다.”⁷⁾ 펜들톤은 그의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가족들 품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훌륭한 고전교육을 받았고, 학문들 가운데 특히 수학을 강조하였으나, 그는 또 언어학분야에서 높은 교육을 받았다. 멀치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는 언어학자였고, 최고기량의 문학자질들을 소유하였다. 그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였고, 그림과 조각 그리고 자연미를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는 비평가였다.”⁸⁾ 그에 대한 이들 평가들로 보아서,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펜들톤은 『밀렌니얼 하빈저』를 통해서 환원운동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하빈저』의 구독을 시작하던 때에 버지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 그는 법률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렉산더 캠벨을 만난 후, 1840년 6월에 캠벨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의 관심들은 곧이어 환원운동의 발전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펜들톤은 상당히 특별한 방법으로 캠벨을 알게 되었다. 캠벨은 그가 『밀렌니얼 하빈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행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에 그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곤 했다. 그가 그의 딸, 라빈나(Lavina)와 동행했던 것은 버지니아 주 여러 곳을 순회하던 한 여행에서였다. 웨스트는 이 여행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평을 하고 있다.

캠벨의 딸 라빈나는 매우 아름답고 쾌활한 성격의 젊은 숙녀였다.... 캠벨과 그의 딸이 마을에 와서 처음 대중 앞에 섰을 때 펜들톤은 병으로 집에 누워 있었다. 대학생들이 참가하였고, 캠벨의 딸을 보았다. 그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펜들톤은 농담으로 받았다. 그가 완쾌되면, 라빈나를 만날 것이고, 또 머지않아 그들 모두를 물리치고 그녀를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⁹⁾

7) Murch, p. 156.

8) *Ibid*

9) West, I, p. 91.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후에 그는 라빈나를 만났고, 그들은 1840년 가을에 결혼하였다. 이것은 매우 행복한 결혼이었으나, 1846년에 라빈나는 죽었고, 때 이른 사별로 펜들톤은 몹시 상심해 하였다. 1841년 9월 2일, 펜들톤과 라빈나 사이에 딸이 태어났고, 그들은 그녀에게 캠벨리나(Campbellina)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2년 후, 펜들톤은 또 다른 캠벨의 딸, 클라린다(Clarinda)와 결혼하였다. 1848년의 이 결혼 역시 그녀가 1850년에 죽음으로써 비극적으로 너무 일찍 끝났다. 그는 5년 뒤인 1855년에 세 번째 여성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그와 여생을 함께 보냈다.

환원운동에서 펜들톤의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그는 1845년 베다니 대학의 부학장으로 뽑혔다. 후에는 『밀렌니얼 하빈저』의 부편집자가 되었다. 그리고 후에는 편집자로 임명되었고, 1870년 폐간될 때까지 『밀렌니얼 하빈저』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캠벨이 더 이상 베다니 대학의 학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펜들톤은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 역할을 1884년까지 수행하였다. 웨스트는 그의 노년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비록 펜들톤이 계속해서 베다니를 왕래하기는 했어도, 그는 노년기를 플로리다에서 보냈다. 1886년 3월에 그는 더랜드(Deland)로 이사하였다. 이사한 직후, 그는 유스티스(Eustis)에 가까운 곳에 오렌지 과수원과 작은 농장을 구입했다. 여기서 그는 그의 책들과 찾아오는 친구들의 방문을 즐기면서 여생을 보냈다. 그가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은 것은 그가 베다니로 돌아가는 여행에서였다. 그때가 1899년 9월 1일이었다.¹⁰⁾

모세 라드(Moses E. Lard). 모세 라드의 생애를 공부할 때는 기꺼이 그 사람의 양면을 보려고 해야 한다. 그는 그가 이해한 성경말씀을 저술하고 표현하는 능력 모두에 있어서 분명 큰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은 핵심을 찌르면서도 때로는 극도로 신랄한 것이었다. 그는 환원교회들이 예배 때에 악기음악을 사용하는 것

10) *Ibid* I, p. 95.

을 가장 열렬히 반대했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가렛트(Garrett)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그는 [악기음악을 사용하는 교회들을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교회들과 친교를 끊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어떤 설교자도 오르간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이것은 불변의 규칙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간의 서신 왕래가 있는 어떤 누구도 오르간을 사용하는 교회와는 결코 연합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소굴에 들어가기보다는 그 교회와 교제를 끊고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셋째, 오르간이 반대하는 자들에게 도입이 될 때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 저항이 무시된다면, 그들이 서신들을 보내서 여기저기에 묻거나 상담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야 하며, 오르간이 없는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한다.¹¹⁾

멀치(Murch) 역시 그에 관해서 동일하고도 보편적인 평가를 내린다. “모세 E. 라드는 ‘사도전승’(apostolic practice)의 어떤 변질도 위험하고 불충한 ‘쇄신’(innovation)이란 견해를 가졌던 학파의 사람이었다.”¹²⁾

모세 E. 라드는 1818년 10월 29일 테네시 주 셸비빌(Shelbyville)에서 스코틀랜드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초기 교육의 혜택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17세 때까지 읽고 쓰지를 못했다. 그는 읽기를 “독학”으로 배웠고, 진실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웨스트는 라드에 관해서 말하기를, “모세 E. 라드에 관한 충분한 이야기가 아직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¹³⁾ 1987년 모세 E. 라드에 관한 첫 전기가 켄넛 밴두센(Kenneth VanDeusen)에 의해서 쓰였고, 칼리지 프레스(College Press)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라드는 매우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가도 이내 심연으로 가라앉곤 할 때가 있었다. 한 작가로서 그는 매우 폭넓은 독자층을 갖고 있었고, 만일 그가 세속적인 글을 쓰는데 전념했다면, 대단한 돈을 손에 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11) Garrett, p. 467.

12) Murch, p. 159.

13) West, I, p. 287.

위한 그의 큰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웨스트(West)는 다음과 같이 부언 한다.

라드가 특별히 기억되어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 설교가로서이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환원운동사 전체에서 배출된 가장 유창한 언설가의 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드는 기대치만큼 평가받지를 못할 때가 있었다.... 라드는, 언급한바와 같이, 대단한 감정의 소유자였다. 그 감정의 분수가 솟구쳐 오를 때면, 그는 청중을 휩쓸어버릴 것 같은 응변의 강물을 흘러내리곤 하였다....¹⁴⁾

라드는 1841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제리 P. 랜캐스터(Jerry P. Lancaster)라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다. 1845년에 모세 E. 라드는 베다니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는 결혼하였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한 투쟁이었다. 그는 매우 재능 있는 학생이었고, 그는 4년의 교육과정을 단지 3년 만에 마칠 수 있었다.

라드는 많은 이유들 때문에 기억되고 있다. 그는, 언급한바와 같이, 매우 능력 있는 설교가였다. 그는 성경을 믿었고, 사람들에게 끝까지 성경에 충실할 것을 권하였다. 그리고 악기음악이 신약성경에 명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것의 가장 열렬한 반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불일치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선교사 공회들(missionary societies)에 관해서, 그는 이것을 사적인 편리성의 한 문제(a matter of personal expediency)라고 믿었다. 그의 저술 능력들은 이미 언급한바와 같다. 그의 『로마서 주석』은 매우 세심한 로마서 연구서이다. 그는 『라드 계간』(Lard's Quarterly)지를 만들었고, 대략 3년 정도 출판하였는데, 유명한 글 몇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모세 E. 라드는 1880년에 죽었다. 비록 그가 평생을 성경문제들에 관한 그의 관점들을 견지했다하더라도, 그가 그의 저술에서 묘사했던 태도들의 일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가 죽을 무렵,

14) *Ibid*, I, p. 289.

그는 정신적으로 점점 더 풀이 죽어있었고, 그의 죽음은 진실로 그에게는 구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환원운동에 끼친 그의 공헌들은 무시될 수 없다.

J. W. 맥가비(J. W. McGarvey). 환원운동의 “지도력의 확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도 존 윌리엄 맥가비(John William McGarvey)였을 것이다. 애정을 듬뿍 담고 널리 쓰인 그의 이니셜이 J. W.이다. 필자는 T. Q. 마르틴(Martin)이 J. W. 맥가비 밑에서 공부한 기쁨의 경험들을 회상하는 것을 청소년기에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와 같이 맥가비의 영향력이 환원운동 전체에는 물론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대단하였다.

맥가비는 1829년 3월 1일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J. W.가 단지네 살 때에 죽었다. 나중에 그의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그 집에서 살았던 열 명의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였다. 맥가비는 베다니 대학에 들어갔고, 그 학창시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W. K. 펜들톤에게 베다니 가까운 곳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는 남북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환원운동 내에서 강한 평화주의 감정을 쏟아내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한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강렬하게 반대하였고, 전쟁에서 어느 쪽이든 편드는 것을 거절하였다.”¹⁵⁾

맥가비에 관해서 기록할 것은 많다. 그러나 지면이 그런 사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가 적어도 세 가지 탁월한 방법으로 환원운동에 공헌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열렬하고 신실한 설교가였다. 그는 탁월한 교육가였다. 그의 저술들은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한 사람으로서 그를 기리면서 읽히고 있다. 비록 맥가비가 스코트나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뛰어난 연사는 아니었지만, 그는 능력을 갖춘 설교가였다. 캠벨이 죽고 난 다음, 맥가비는 환원운동사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5) Murch, p. 153.

저술가와 학자로서, 맥가비는 아마도 그의 세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그는 『사도행전 주석』(*Commentary on Acts*)을 썼고, 그의 책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남아있다. 그는 환원운동사에서 성지를 여행한 최초의 사람이었고, 『성경의 땅』(*Lands of the Bible*)을 썼다. 이 책은 지금도 자료집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는 정기적으로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에 기고하였고, “기독교의 증거들”(Christian Evidences)에 관한 그의 저술들은 아직도 역사의 기념비적인 자료들이다.

교수직은 맥가비에게 아마 가장 적성에 맞는 직업이었을 것이다. 그는 켄터키 주 렉싱턴(Lexington)에 있는 성경대학(College of the Bible)에서 수년간 교수로서 봉직하였다. 그는 수학과 영문학 과목들을 가르치라는 주문을 받았지만, 그는 이것들을 거절하였다. 그는 성경교사로서 가장 자질을 갖췄고, 또 가장 요구되었던 것이라고 믿었고, 결과적으로 그 학교에서 그 일들을 해냈다.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유명해진 많은 사람들이 J. W. 맥가비의 지도력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악기음악에 반대하였고, 악기가 사용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거절하였다.¹⁶⁾ 그러나 그는 선교사 공회(Missionary Society)의 확고 부동한 지지자였다. 맥가비는 1912년 9월 12일에 죽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다.

“래쿰” 존 스미스("Raccoon" John Smith). 환원운동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래쿰” 존 스미스였다. “래쿰” 존 스미스의 이야기는 비통함과 유머, 깊은 영성, 슬픔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삶은 그의 생애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들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였다.

존 스미스는, 1784년 10월 15일, 테네시 주 동부지역에서,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13명의 아이들 가운데 9번째였다. 그의 아버지는 몇 번의 이사 끝에 결국 켄터키에

16) 역자 주: 맥가비는 유악기 예배를 반대하였으면서도 유악기 교회에서 목회하였다.

정착하였다. 스미스는 너구리들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래쿰”(너구리)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평생 동안 그 이름이 따라다녔다.

그의 부모인 조지 스미스(George Smith)와 리베카 “보웬” 스미스(Rebecca “Bowen” Smith)는 확고부동한 칼뱅주의자들이었고, 칼뱅주의 신학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굳힌 사람들이었다. 존은 침례교회의 교리들만을 알고 자랐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에 매우 충실하였다. 그는 칼뱅주의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지시하는 “표적들”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가 해석한 한 사건을 그의 “소명”과 동일시하였다. 그는 그의 “경험”을 고백하였고, 침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받아드려졌고, 침례를 받았다. 그는 설교가가 되기를 심히도 원했다. 그러나 다시, 그는 “설교할 소명”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 그는 어느 날 방울뱀을 피하였다. 그는 그것을 그의 소명으로 해석하려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는 한 황소와의 싸움에서 가까스로 죽음을 피하였고, 그것을 그의 설교에 대한 소명으로 제시하였다. 교회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안수를 받았다.

1806년 12월 9일, 존은 안나 타운센드(Anna Townsend)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네 자녀를 두었다. 스미스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앨라배마 주로 이사하였고, 1814년에는 그의 생애를 덮친 몇 번의 비극들 가운데 첫 번째를 겪어야 했다. 웨스트는 다음과 같이 그 비극을 요약하였다.

불행이 자주 스미스를 덮쳤고, 여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을 만났다. 그는 설교하기 위해서 출타 중이었다. 그의 아내는 병든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오두막을 떠났고, 아이들은 스미스 부인의 형제, 히람 타운센드(Hiram Townsend)와 함께 집에 있었다. 갑자기 오두막이 불길에 휩싸였고, 빠르게 바닥까지 태워버렸다. 자녀들 가운데 두 명은 화상을 입고 살아남았다. 스미스 부인을 덮친 공포와 무서움은 다만 아련히 상상되어질 뿐이다. 그 슬픈 소식이 스미스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라헬(Rachel)처럼, 그의 부인은 위로 받기를 거부하였을 것이다. 여러 날들이 흘러갔지만, 그녀는 점점 더 가라앉았고, 결국 먼저 간 두 자녀들 곁에 묻히고 말았다. 스미스 자신도 병이 들었다. 그는 열병에 걸렸고, 수일 동안 사경을 헤맸다. 그리

고 서서히 그는 회복되었다.¹⁷⁾

평상시로 되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결국 그는 다시 설교를 시작하였고, 예전의 자신을 회복하였다.

스미스는 칼뱅주의의 예정교리와 싸웠다. 한번은 설교 도중에 딜레마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논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낼 수가 없어서, 그는 청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설교를 끝냈다. “형제자매들이여,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빛으로 인도해낼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어떻게 찾아낼지, 저는 모릅니다.”¹⁸⁾ 그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는 그 와중에도 낸시 헐트(Nancy Hurt)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과 결혼하였다. 그는 그 문제를 그녀와 논의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크리스천 뱅티스트』(Christian Baptist)지를 구독함으로써 알렉산더 캠벨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스미스는 많은 이유들 때문에 환원운동에서 중요하며, 그의 독특한 성격이 환원운동사에 추가하였던 특색이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는 대단한 열정으로 그의 청중들을 움직였던 힘 있고 성경에 기초한 설교자였다. 그는 1830년대 초 스톤과 캠벨 운동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을 때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는 주님께 헌신하였고, 그의 설교는 수백 혹은 수천 명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게 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존 A. 윌리엄즈(John A. Williams)에 의해서 쓰였고, 그의 삶의 큰 줄거리들은 웨스트(West)와 가렛트(Garrett)의 저술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환원운동사에 위대한 인물들은 매우 많아서, 우리는,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 존 T. 존슨(John T. Johnson), P. S. 폴(P. S. Fall), 탈

17) West, I, p. 245.

18) John A. Williams, *Life of Elder John Smith*(Cincinnati, Ohio: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04), pp. 115, 116. 가스펠 애드보케이트사(Gospel Advocate Company)에서 1956년에 이 책을 재 출판하였다는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버트 팬닝(Tolbert Fanning) 등 수많은 다른 이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환원운동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이들 다른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공부해 주기를 바란다.

결론

이 강의의 목적은, 환원운동이 자체의 특성을 발전하기 시작하였을 무렵, 그것의 “제2의 물결”에서 탁월하게 활동한 지도자들의 일부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우리는 일부 중요한 인물들의 삶들을 개괄하였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들은 환원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였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완전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들을 다 얻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들은 해답들을 얻으려고 찾고 있었고, 이들 불일치들의 몇 가지 결과들은 그것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에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해답들에 항상 일치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또 이들 불일치들의 몇 가지 결과들은 이 책의 나머지 강의들을 공부하면서 찾게 될 것이다.

토의 주제들

1. 월터 스코트의 개인적인 특성을 기술하십시오.
2. 왜 월터 스코트는 “금언”이라고 불리었는가?
3. 무엇이 스코트가 환원운동에 끼친 주요 공헌들이었는가?
4. 무엇이 W. K. 펜들톤이 환원운동에 끼친 독특한 공헌들이었는가?
5. 알렉산더 캠벨과 월터 스코트, 알렉산더 캠벨과 W. K. 펜들톤

과의 특별한 관계를 논의하시오.

6. 무슨 방법들에서 모세 E. 라드는 환원운동에 그렇게 독특하였는가?

7. 왜 J. W. 맥가비는 환원운동에서 그렇게 우뚝 솟은 인물이었는가?

8. “래쿰” 존 스미스의 다채로운 삶을 논의하시오.

제9강

진보와 퇴보

Progression and Retrogression

앞에서 다룬 글들에서, 우리는 “환원 이상”(Restoration Ideal)의 발생과 괄목할만한 성장을 살펴보았다. 많은 지도적인 사상가들을 통해서 미국의 종교역사의 흐름을 바꿀 한 운동이 발생하였다. 환원운동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시작된 가장 중요한 종교운동들 가운데 하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환원운동은 동부 여러 주들로 번져나갔고, 서부 개척지에까지 이르렀으며, 미시시피의 동부 지역들에 퍼져나갔다. 또 어떤 활동은 심지어 이들 경계들 너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우리는 구역질나는 분열증상들의 몇 가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이런 증상들은 환원운동의 계층들에서 나타났고, 결국에는 형제들을 쫓아내고 말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기간동안 신실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줄곧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분열은 기독교에 독약이란 사실을 더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왕국은 더 신속하게 사람들의 마음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환원운동의 성장

우리가 환원운동의 성공에 대한 모든 원인들과 공적들을 약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1)“사도전통”(Ancient Order

of things)을 회복할 시기가 성숙되었다. 당대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고 있었던 분열과 불화에 염증을 내고 있었다. 그 시대 사람들의 탐험정신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들의 확신들을 조사해보게 하였고, 기꺼이 개인들로써 일어서게 하였다. (2)그 운동의 지도자들은 한 목적에 헌신하였다. 어떤 위대한 운동도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없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토마스 와 알렉산더 캠벨, 스톤, 스코트, 기타 덕망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반대에 맞서려고 하였다. (3)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수용한 것이 그 운동의 발전을 도왔다. 남녀 성도들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메시지로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감행하려하였다. 이들 세 가지가 환원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이용되었다. 이들 요소들은 확실히 성공을 위한 위대한 목적들에 해당된다.

많은 도구들이 환원운동의 성장에서 탁월한 역할을 맡았다. 확실히, 설교는 탁월한 역할을 하였다. 환원운동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배출하였다. 모든 설교자들이 동등하게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헌신하였다. 출판은 신앙지들의 인쇄와 책들과 전도지들의 출판 모두에 폭넓게 사용되었다. 많은 수의 훌륭한 잡지들이 그 시기로부터 계수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토론들과 직접대면은 메시지를 나누고 생각을 고취하는데 사용되었다. 캠벨 자신은 많은 수의 성공적인 토론들에 참여하였고, 다른 사람들 또한 곳곳에서 토론대회들을 열었다. 면밀한 강의 프로그램들이 가정들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학교들은 목회자들을 키워내고,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환원운동은 성숙하였고, 사람의 생각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든 성장요소들에는 또한 실망스런 결과들도 있었다. 지금의 환원운동의 성장과 성공에 공헌했던 동일한 도구들의 몇 가지는 몇몇 나쁜 결과들을 가져다주었다. 이들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계층들 속에서 심각한 분열을 야기했는가를 보게 될 것이

다.

의심할 바 없이, 많은 요소들이 환원운동이 직면했던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글들에서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세 가지, 즉 (1)남북문제들, (2)선교사 공회, 그리고 (3)악기음악에 대해서 제안을 내고 논의할 것이다.

남북문제들

남북문제를 거론할 때는 매우 복잡한 상황들과 태도들 그리고 행동들을 다루는 것이다. 거기에는 노예제도 문제뿐 아니라, 작용하기 시작한 급진적이고 지역적인 선입견들도 있었다. 노예제도는 단지 불일치의 한 가지 요소일 뿐이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터지자, 상황이 격화되었던 것이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남쪽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뿐 아니라, 순수한 논리적 관점에서도 빈곤하게 되었다. 남북 모두에서 훌륭한 많은 젊은이들이 전사하였거나 부상을 입었다. 도시들은 불타고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의 재산손실은 막대하였다. 이들 빈곤해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들을 가지고 응전하였다. 종종 가족의 일부가 남군을 위해서 싸우는 동안 남은 다른 가족은 북군을 위해서 싸움으로써 가족들이 둘로 찢어졌을 때,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들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들 개인의 감정들은 형제애의 의식에서 머뭇거렸다.

19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많은 교육기관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북부에서는 더 좋은 경제적 안정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도 대부분의 학교들은 북쪽에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남부 그리스도인들은 북부지역 학교들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결과로써 고등교육에 대한 심한 불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는 반대로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es/Disciples of

Christ)이 되게 하였는가에 대한 지리적 형성을 조사할 때, 발전된 하나의 중요한 영토구분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비노예제도 문제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자들은 물론 (베다니, 신시내티 성서학교, 버틀러대학교, 기타 그와 같은) 학교들의 영향을 좀더 크게 받았던 북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남부 그리스도인들이 환원운동의 “보수적인” 요소로 좀더 밀접하게 뭉치려 하는 동안, “자유주의자들”로서 간주되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적이었다기보다는 이념적이었던 한 가지 다른 요소는 평화주의 문제였다. 이 문제는 지리적 경계선들에 어떤 제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들은 높이 솟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맥가비는 평화주의자 입장에 매우 깊이 관여하였다.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은, 수년 후, 민간정부 참여를 반대하는 챔피언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초기 환원운동가들이 개신교 분열정신을 피할 방도를 구하고 있었을 때, 과거와 같은 상당히 동일한 방법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선교사 공회

우리는 알렉산더 캠벨의 사역을 추적하여 그가 토론대회들을 열고, 책들을 저술하면서, 성장하는 환원운동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2차 10년 동안과 1830년대를 개괄하였다. 스톤과 캠벨의 무리들은 신약성경 기독교를 회복하는 한 가지 목표로 연합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이 보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목적을 진척시킬 더 나은 방법들을 구하는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

환원운동 초기에, 교회들 사이에 더 큰 조직의 필요성을 외치기 시작한 자들이 있었다. 캠벨은, 만일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만 있다면, 형제들에게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종의 “성급한” 주(州)별 모임들이 이미 1836년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1839년 25개 교회들의 협동모임이 인디애나 주 리치몬드(Richmond)에서 개최되었다. 인디애나 주는 첫 모임을 1839년에 가졌고, 켄터키 주

남부에서는 1842년에 유사한 모임을 가졌고, 그렇게 계속되었다.

동시에 다른 형제들은, 신약성경에로의 환원은 단순한 개별교회 조직방법(simple congregational method of organization)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역시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교단(the Church)의 다양하고 유익한 사업들을 위해서 그들의 후원을 “모아 부어준” “대형조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1849년 10월 23-26,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월넛(Walnut) 8번가 코너에 있었던 크리스천 채플(Christian Chapel)에서 최초로 선교사 공회를 조직할 총회가 소집되었다. 그 모임은 “미주 크리스천 선교사 공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라 불리게 되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병들어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대표해서 W. K. 펜들톤을 참석시켰다. 캠벨은 불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명의 부회장들이 선출되었다.

미주 크리스천 선교사 공회 이외에도 1845년 1월 27일 신시내티에서 D. S. 버넷(Burnet)이 미주 크리스천 성경 공회(American Christian Bible Society)를 설립하였다. 상당한 반발이 이들 두 공회들의 조직에 수반되었고,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그룹 내의 심각한 부식과 분열을 초래한 이슈들이 되었다.

악기음악

처음 선교사 공회가 설립된 때로부터 또 다른 중대한 이슈가 고개를 쳐들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0년이었다. 이것은 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 또는 사용하지 말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멀치(Murch)는 환원운동보다도 더 광범위한 문제의 논쟁적인 성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오르간 논쟁은 제자들(Disciples)¹⁾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개신교의 모든 교단들은 그것 때문에 찢어졌다. 유럽에서의 종교개혁 초

1) 역자 주: 그리스도의 교회들.

창기에 칼뱅과 츰빙글리는 예배 중에 오르간 사용에 반대하였다. 감리교회는 자유 감리교회(Free Methodists)로 알려진 작은 분파를 잃었고,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연합 장로교회(the Reformed and United Presbyterians)²⁾와 같은 반 오르간 분파들을 잃었다. 이들은 또한 시편만을 노래하되, 단지 박자(metric version)만 넣어서 할 것을 고집한다. 침례교회는 초대교회 침례교회(the Primitive Baptists)를 잃었고, 다른 많은 교단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³⁾

물론 강한 차이점들을 초래한 다른 많은 견해의 차이들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몇 개를 다음 강의들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악기음악은 이미 1851년에 지면들을 통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악기음악을 환원운동의 예배에 처음 도입한 곳을 꼭 짚어서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치는 “교회예배에 보조수단으로써 오르간들의 도입은 형제들을 괴롭힌 가장 심각한 논쟁들 가운데 한 가지를 배출했다.”⁴⁾고 진술한다.

1860년 켄터키 주 미드웨이(Midway)의 L. L. 핀커톤(Pinkerton)은 『미주 크리스천 리뷰』(*American Christian Review*)의 편집자 벤 프랭클린(Ben Franklin)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그에게 그가(핀커톤) 악기음악을 주창하였고, 미드웨이가 그 당시 그것을 사용하는 유일한 교회였다고 말하였다.

많은 기사들이 쓰였고 많은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나 예배에 이들 보조수단들을 도입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이야기의 상세한 사항들의 소개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좀더 상세한 작업들을 독자에게 언급한다. 처음에 그 이슈는, 남북전쟁 후 그랬던 것만큼, 그렇게까지 팽팽하지는 않았다. 웨스트는 “악기음악은 그것이 나중에 심히 악화되었던 것만큼, 당대의 사상에서는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쟁 후, 악기음악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슈는

2) 역자 주: 정확한 교단 명칭은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North America임.

3)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Cincinnati, Ohio: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72), p. 160.

4) *Ibid.*, p. 157.

좀더 뜨겁게 달아올랐다.”⁵⁾고 보았다. 웨스트는 “예배에 그것이 도입된 거의 모든 경우에서 심각한 분출이 야기되었다.”⁶⁾고 부언한다.

분열이 현실이 되다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실제로 환원운동은 오늘날 적어도 세 가지 주요 그룹들이나 분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 각각의 그룹은 또한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다.

분열이 현실이 된 때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관련된 지역들의 상황들은 그들이 다른 지역들에서 행하였던 것보다 더 빨리 친교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1906년까지 분열작업은 완료되었다. ‘그리스도인 교회들’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이 불리기를 원했던 대로 그들의 악기들과 선교사 공회들을 수용하였고 새로운 길을 갔다.”⁷⁾ 그리스도인 교회(Christian Church)와 좀더 밀접하게 손잡고 있었던 멀치(Murch)는 분열로 들어섰던, 개방 또는 폐쇄 성만찬, “기독교 교리 속에 자유주의 등장,” 그리고 그 밖의 일들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⁸⁾

미국 인구조사국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교회들(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분리된 조직들로 열거했던 것은 1906년이였다. 그때로부터 그들 사이에 어떠한 유기적 일치도 없었다. 그러나 남은 세 강의들에서 우리는 그룹들 사이에 존재하는 몇 가지 차이점들과 유사점들에 주의를 조금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그룹들 사이에 놓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수행되고 있는 몇 가지 노력들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포함시킬 것이다.

악기음악과 공회들의 수용이든 또는 그것들의 거절이든 어느 쪽으

5) West, I, p. 317.

6) *Ibid*, II, p. 80.

7) *Ibid*

8) Murch, pp. 215-217.

로든 인도한 많은 이유들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환원운동의 공부는 북부지역에서 악기음악의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이 더 강했던 반면에 남부지역에서는 좀더 보수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많은 요인들이 확실히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었다. 그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분명히 남북문제들이었다. 또 다른 요인은 아마도 더 강한 기독교 학교들이 북부에 있었고, 그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고려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남부에서는 『가스펠 애드보케이트』(*Gospel Advocate*)와 『firm 파운데이션』(*Firm Foundation*)이 남부 사람들의 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반면, 북부에서는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와 아마도 『밀레니얼 하빙저』(*Millennial Harbinger*) (그것이 계속해서 출판되어진 동안)가 영향력이 더 컸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필자의 생각이다. 남부의 잡지들은 좀더 보수적인 경향을 띠었고, 악기들의 사용과 공회들을 반대했던 반면, 북부의 잡지들은 좀더 자유로운 경향을 띠었고, 그것들의 사용을 좋아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확신들과 정직은 결코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려고 힘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다. 어떤 이들은 악기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선교사 공회는 반대했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정반대로 처신했다.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보편적인 법칙도 없었다. 이어질 강의들에서는 그 문제를 지탱시켜왔던 몇 가지 요소들을 더 살펴보게 될 것이다.

결론

결론으로, 이 강의에서, 우리의 연구는 별도의 분파들로 갈라놓았던 차이점들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두 가지 주요 교리적 이슈들은, 말하자면, 예배에서의 악기음악의 사용과 교단(the Church)의 선교 노력들을 진척시킬 목적의 선교사 공회들의 조직이었다.

우리는 또한 남북의 이슈가 감정들에 이롭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상당한 선입견이 있었고, 사랑의 수준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만큼 높지 않았다. 따라서 교회가 나뉘지는 것을 사람들이 용인해 버린 이들 차이점들은 그 폭이 매우 컸다.

토의 문제들

1. “하나님의 백성은 장기간동안 신실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암시하는 바들을 논의하십시오.
2. 무엇이 환원운동의 빠른 확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들이었는가?
3. 환원운동의 확산과 성장과정에서, 설교, 인쇄물, 토론의 역할을 논의하십시오.
4. 어떻게 남북전쟁과 다른 남북문제들은 환원운동의 성장과 분열에 영향을 미쳤는가?
5. 무엇이 환원운동의 성장과 분열에서 고등교육이 암시하는 것들이었는가?
6. 선교사 공회와 악기음악이 분열을 키우는 데 미친 영향들을 비교하고 대조하십시오.
7. 무엇이 선교사 공회에 대한 알렉산더 캠벨의 태도였으며 반응이었는가?

제10강

그리스도의 교회들

The Churches of Christ

앞에서 우리는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견해차의 폭풍이 환원운동을 갈라놓은 분열로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배웠다. 먼저, 분열의 중심에 놓인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다. 예배에서의 악기음악 사용과 교회들의 선교사역의 협력과 감독을 위한 선교사공회의 도입이 그것들이었다. 그러나 분열이 결국 일어나고만 데에는 몇 가지 다른 내적인 문제들도 있었다.

이 강의와 그 다음 두 강의들에서 우리는 “스톤-캠벨 운동”의 세 가지 주요 분파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Independent Christian Churches),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세 분파들은 “스톤-캠벨 운동” 또는 “환원운동”으로 알려진 개혁운동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환원운동의 이들 세 “분파들” 사이에서 어휘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그들의 공통적인 배경을 말할 때에 “환원운동”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환원운동”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고, 대신에 “스톤-캠벨 운동”이란 말을 선호한다. 나중에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지적하겠지만, 필자는 이들 두 단어를 모두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비록 필자가 분명하게 신학적 편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운동들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객관성을 갖도록 힘쓸 것이다. 이들 세 가지 운동들이 연구되어질 순서는 보수적 경향에서

좀더 진보적 경향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먼저 공부할 것이며, 이어지는 강의들에서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차례대로 공부할 것이다.

역사적 교리적 개관

우리가 앞 강의들에서 살펴본 대로, 1906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다. 분열의 위협은 수년 전부터 있어왔다. 필연적인 분열을 미연에 방지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어왔으나 감정적 교리적 긴장들이 그같이 최고조에 달해서 1906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미국 인구조사 보고서에서 따로 열거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분열이 굳어지게 되었다.

교리의 구별성은 우리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구별의 힘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많은 이슈들 주변에 집중되었다. 환원운동 초기에 스톤과 캠벨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Where the Bible speaks, we speak; where the Bible is silent, we are silent.)는 슬로건을 채택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관련된 자들은 이 슬로건을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였다. 말하자면, 만약 성경이 교리의 어떤 점에 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교리적 신념이나 실천이 관련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피해야할 충분한 이유였다.

성경말씀의 권위는 전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들” 분파를 추종하는 자들 모두는 아닐지라도,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는 세 가지 방법들, 즉 우리가 배운 바, 직접적인 명령, 승인된 사도의 모범, 그리고 필요한 추론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직접적인 명령(direct command)은 충분히 명백하며, 침례를 받으라(마 28:18-20)는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승인된 사도의 모범(approved apostolic example)은 성도들이 주님의 만찬(행 20:7)에 참여하기 위해

서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추론(necessary inference)은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기”(마 3:16) 때문에, 그분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술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이들 세 가지 방법들을 끊임없이 사용해 왔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환원운동의 다른 분파들 간에 환원운동의 역사적 발전에서 일어난 주요 차이점들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즉 예배에서 악기음악의 사용과 선교사공회를 통한 교회간의 협력의 실행들이다. 그 사이의 몇 해 동안에 일어난 다른 차이점들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이슈들은 분열의 중심에 있었다. 최근의 차이점들에서는 각 분파가 성경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포함하게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비록 독립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승인된 사도의 모범의 사용에는 대개의 경우에서 십중팔구 동의할지라도, 필요한 추론의 사용에는 십중팔구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차이점들은 다음의 두 강의들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성장과 힘. 한 가지 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운동들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 운동의 열정은 20세기 전반(前半)에 대단히 강하였다. 많은 수단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이용되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을 언급하려고 한다. 그 시기의 전반(前半)에 심사숙고아래 신앙토론들이 매우 성행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기존 교단들의 목회자들과 토론하였다. 성경말씀의 권위에 의존하는 특유함 때문에 이들 교회들의 많은 교인들을 인도하는데 성공하였고, 꽤 많은 수의 목회자들도 환원하였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은 신앙토론을 통한 교수방법의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종 “부흥집회들”로 언급된 “복음집회들” 또한 매우 성행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대다수가 두 번의 복음집회들을 일 년에 한번 또는 여러 번씩 정기적으로 열었다.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이들 집회들 가운데 한번이상 관여하였고, 몇몇 유능하다고 알려진 부흥강사들은 이들 집회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다. 유명한 부흥강사들 가운데 몇 사람만 열거한다면, 윌러드 콜린즈(Willard Collins), T. B. 래리모어(T. B. Larrimore), 가이 우즈(Guy N. Woods), G. C. 브류어(G. C. Brewer), 포이 윌리스 쥬니어(Foy E. Wallace, Jr.), N. B. 하드만(N. B. Hardeman), 제임스 코프(James R. Cope), 호레이스 버즈비(Horace Busby), J. D. 탄트(J. D. Tant), 거스 니콜스(Gus Nichols), T. Q. 마르틴(T. Q. Martin), 마셜 키블(Marshall Keeble), R. N. 호건(R. N. Hogan), 에드워드 크래도크(Edward J. Craddock), E. W. 맥밀런(E. W. McMillan)이며, 이밖에도 수많은 부흥강사들이 있었다. 이들 복음집회들은 종종 새 신자들을 얻는 주된 원천이었다. 좀 작고 더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들 집회들을 연중 여는 행사의 중심으로 취급하였고, 때로는 그들이 설교자를 모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의 일부이기도 하였다. 주일 예배들은 종종 개교회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도되었다. 필자가 유년시절 다녔던 교회에서도 분명 그랬다.

페퍼딘 대학교(Pepperdine University)의 교수이자 수년간 필자의 사적인 친구인 로렌스(래리) 킨<Laurence(Larry) Keene> 박사는 환원운동의 세 분파들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필자가 조사에서 살펴본 바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평균크기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평균크기의 대략 절반 정도이며, 제자들의 교회들의 평균크기의 삼분의 일 정도이다.”¹⁾고 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상당 부분이 시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제자들의 교회들은 많은 수가 도회지와 대도시들에 위치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써 필자의 테네시 주 월렌 군(Warren County)의 고향에는

1) 1987년 9월 17일 페퍼딘 대학교(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lifornia)에서 이루어진 로렌스 킨 박사와의 개인 인터뷰 내용. 허락 받고 사용함.

한 때 50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었다. 크기가 다른 또 다른 이유는 교회들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무리 지어 나가서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경향이 있었고, 더 슬픈 사실은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점들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갈라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우세한 지역들은 테네시 주,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와 미시간 주에서 열거한 순서대로 더 강한 성향을 띄고 있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에 이루어진 다른 주들에서의 선교사역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안목을 넓히는 효과가 있었다. 세 분파들의 크기와 관련해서 킨(Keene)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몇 가지 흥미로운 인구통계학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중팔구 세 그룹들 가운데서 가장 크며, 교인이 대략 150만 명 정도이다. 독립 그리스도인들은 대략 100만 명 정도, 제자들은 대략 110만 명 정도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교인들이 줄고 있고, 독립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현상유지를 해왔다. 지난 45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인들이 대략 40만 명 정도 십중팔구 줄어들었다.²⁾

교인수 감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이유들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이유는 오늘날은 전보다 더 정확한 기록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수년 전, 노벌 영(M. Norval Young) 박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인수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조사원들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그는 조금 부풀려 추정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종교 단체들이 “유아 세례자들”까지 추정치에 포함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며, 비록 그들이 교인들은 아닐지라도, 그도 그들을 추정치에 포함시켰다고 말한다. 이것은 타종교 단체들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며, 그들과 좀더 일치하는 통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 수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때

2) *Ibid*

우 높다.

인물들과 운동들

그리스도의 교회들에는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복음집회”운동에서 두각을 보였던 주도적인 전도자들을 많이 열거하였는데, 몇몇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들 이름들을 열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하였고, 또 분명히 누락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특징지었던 몇몇 주도적인 인물들과 운동들과 이슈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정확하고 좀더 포괄적인 연구를 위해서 독자에게 얼 웨스트(Earl West)의 『사도전통의 탐구』(*Search for the Ancient Order*) 3-4권을 읽도록 권한다. 4권은 매우 최근에 출판된 책이며, 좀더 최근의 일들을 담고 있다. 이들 네 권의 책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관점과 환원운동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책들이다.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인물들과 운동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우리는 분열의 요소를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교회들 내부의 대역섯 가지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주목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관련된 몇 개의 조직들과 교육활동들을 살펴 볼 것이며, 이들 몇몇 뛰어난 이름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주요 분열 문제들

많은 이슈들이 지난 50-75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괴롭혔다. 우리는 이들 몇몇 운동들을 단순히 열거하는 차원을 넘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덧붙이려고 한다.

전천년설(premillennialism)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직면해야 할 첫 번째 주된 이슈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 운동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기 전에 “천년동안

통치"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였다. R. H. 볼(Boll)은 1930년대에 시작해서 1940년대에 절정에 이른 이 운동의 선두주자였다. 이 운동은 부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끝났다.

한컵운동(One-Cup Movement)은 많은 교회들에서 일고 있었다. 이 관점을 취하고 있는 자들은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오직 한 개의 성찬 컵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종종, "한 컵" 전통을 신봉한 교회들은 두 개나 그 이상의 컵들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개인용 성찬 컵들의 도입에는 반대하였다.

또한 **주일학교(Sunday School)**와 성경공부시간에 교재 사용(Literature)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교회들에서 있었고, 또한 반(反)대학(Anti-College)운동도 있었다. 비록 이들 세 가지 운동들이 실제로 다른 이슈들이었지만, 우리는 그것들 간에 얼마간 유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묶었다. 다니엘 쉰머(Daniel Sommer)는 이 운동의 주도적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은사운동(Charismatic)은 많은 신앙운동들에 침투하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운동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에 의한 방언 말함, 병 고침, 심지어 어떤 경우들에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추구하였다.

교차로운동(Crossroads Movement)은 복음전도에 대한 더 큰 열정과 교회발전과 성장을 위한 더 큰 동기를 키우기 위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염원에서 발전되었다. 생각 그 자체는 좋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접근을 다소 "이교적인" 것으로 특징지었고, 그것이 도입된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분열의 원천이 되었다. 보스턴에 집중된 "제자화 운동"은 교차로 운동의 가장 최근의 부산물이다.³⁾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입증된 몇 개의 주요 운동들이다. 이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전체적인 성장과 발전은 건강하였다.

3) 한국에도 보스턴 운동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명을 붙인 그리스도의 교회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조직들과 교육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여러 조직들, 출판물들, 그리고 교육철학들을 다루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에는 중앙조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할 모든 조직들은 교회들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지, 지배받지는 않는다.

양로원들, 고아원들, 그리고 보다 최근에 설립되고 있는 퇴직자속소들은 지난 수년간 성장해왔다. 이들은 환원운동에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었다. “저주”의 측면은 교인들 상당수가 이들 자선 기관들에 교회차원에서 후원금 내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성도들이 후원에 우호적이었고, 그들은 꽤 많은 기관들을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후원에 신뢰를 주었다. 지면관계상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언급하지는 않겠다.

출판물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에서 유명한 주요 출판물 여섯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스펠 애드보케이트』(*Gospel Advocate*)지(誌)는 모든 신앙잡지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가진 것들 중의 하나이고,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것은 테네시 주 내쉬빌(Nashville)에서 발행되고 있다. 『firm 파운데이션』(*Firm Foundation*)은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발행되고 있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계속 발행되고 있다. 이 두 개의 가장 두드러진 신앙지들은 일반 독자들을 위한 것들이다. 좀더 전문성을 띤 출판물로는 『20세기 그리스도인』(*20th Century Christian*)이 있으며, 탈 이슈를 지향하는 잡지와 그것에 따라붙어 나오는 묵상지 『오늘의 능력』(*Power for Today*)이 있다. 『크리스천 크로니클』(*Christian Chronicle*)은 오클라호마 주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발행되는 뉴스잡지이다. 『환원 계간지』(*Restoration Quarterly*)와 『미션 매거진』(*Mission Magazine*)은 좀더 학문적인 성격의 것들이며,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토의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육은 그것의 전도와 훈련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었다.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세워졌다. 킨(Keene)은 “그리

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좀더 유사한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 그들은 결코 일반대학(liberal arts) 교육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 그리스도인 교회들은 대개가 결코 일반대학(liberal arts)들을 세우지 않았다.”⁴⁾고 지적한다. 몇몇 대학들을 누락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모든 대학들의 이름을 신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서 더 오래되고 더 알려진 대학들로는 테네시 주 내쉬빌에 있는 데이비드 립스콧(David Lipscomb) 대학(교), 테네시주 헨더슨(Henderson)에 있는 프리드-하더만(Freed-Hardeman) 대학(교), 오클라호마 주 시얼시(Searcy)에 있는 하딩(Harding) 대학교, 텍사스 주 애벌린(Abilene)에 있는 애벌린 기독교 대학(교), 오클라호마 주 오클라호마시티에 있는 호클라호마 기독교 대학(교), 텍사스 주 루복크(Lubbock)에 있는 루복크 기독교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 말리부(Malibu)에 있는 페퍼딘(Pepperdine) 대학교, 그리고 오리건 주 포틀랜드(Portland)에 있는 콜롬비아 기독교 대학이 있다. 전문대학들의 이름은 전혀 신지 않았다. 설립된 초중고학교들도 또한 많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⁵⁾

다른 많은 수단들이 교회의 전도와 성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진리의 선포자』(*Herald of Truth*)는 텍사스 주 애벌린(Abilene)에서 전국에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는데 매우 영향력 있는 보조수단이 되었다. 개 교회들이 후원하는 선교 사역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매우 성공적인 운동들을 일으킨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여기에 포함된다. 연구되어질 세 그룹 모두를 포함시킨다면, 환원 운동의 성공에 기여한 탁월한 남녀 주의 종들이 수십 명에 이르게 된다.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언급할 수가 없다. 언급한다 해도 분명히 몇 사람은 뜻하지 않게 누락이 될 것이다.

4) *Ibid*

5) 역자 주: “(교)자”는 역자의 것으로 College에서 University로 교명이 바뀐 대학교들이다. 최근에는 독립(유악기)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소속 대학들에서도 대학에서 대학교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20세기 마지막 10년에 접근하면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세력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원운동의 한 분파(wing)인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에 관해서 수많은 세미나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다. 독자들은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공부한 지식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결론

이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로 알려진 환원운동의 더 보수적인 그룹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무악기”(non-instrumental)파로 특징지어지는데, 이것은 단지 그들이 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언제나 무반주 노래(acapella)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처음으로 그들을 환원운동의 다른 그룹들과 구별하여 목록에 올린 1906년부터 별개의 존재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체제상 회중주의이며, 미국에만 일백만 이상의 성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환원운동의 다른 그룹들과 교회간 활동적인 친교를 갖지 않는다.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활동적이고 지속적인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고, 20세기 말에는 성장 곡선이 다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의 문제들

1. 무엇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사이를 분열 시킨 두 가지 큰 이유들이었는가?
2.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는 진술의 함의(含意)를 논의하시오.

3.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들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주어진 해석에 따라서 논의하십시오.

4. 다음의 문제들을 논의하십시오: “전천년설,” “한 컵 문제,” “은사 운동.”

5. 누군가로 하여금 “교차로운동”이나 “보스틴운동”을 조사하여 발표토록 하시오.

6. 환원운동의 세 가지 분파들의 차이점과 고등교육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논의하십시오.

제11강

독립 그리스도인 교회들

Independent Christian Churches

앞 강의에서 우리는 환원운동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들(무악기)을 분리시킨 사건들을 약술하였다. 우리는 1906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들이 종종 환원운동의 “주제에서 이탈하기 쉬운” 구성원들이라고 말했던 자들로부터 탈퇴한 것을 보았다. 이 분리가, 그럴 것 같았던, 두 개의 잘 정의된 신앙운동들로 귀착되지 않았다.

환원운동의 나머지 부분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라고 말하게 될) 모든 신학적 문제들에서 그들 자신들 간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의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다른 분리로 결말났다.

철학적 관점

앞 강의에서 우리는 환원운동의 유무악기 그룹들 간의 분열의 주된 배경들 가운데 한 가지가 그들의 성경해석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였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또 필자가 그렇게 믿는다면,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서 발전된 분열의 뿌리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개리슨(Garrison)과 드그루트(DeGroot)는 “분파적 악의들의 칼날을 둔화시키고 교파적 전투장의 가장자리들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 결합하였던”¹⁾ 두 가지 영향

1) Winfred Ernest Garrison and Alfred T. DeGroot, *The Disciples of Christ: A History*(St. Louis, Mo.: 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 1948), pp. 402-403.

들을 말한다. 우리는 이들 영향들의 수행이 거꾸로 불화를 일으킨 영향들을 또한 날카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다. 개리슨과 드그루트는 이들 두 가지 영향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다음의 단락들에서 그것들을 논의한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후에 우리 자신의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들 가운데 첫 번째는 교리적 정통에 관한 문제들이 미약해지고 중요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적용된 기독교의 실천적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는 압박이 집중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것은 교리 식별을 덜 권위주의적이고, 덜 교조주의적인 생각으로 수행한 성경의 “새로운 견해”로 여전히 불리어질지 모를 것에 대한 폭넓은 수용이었다.²⁾

이들 두 가지 영향들 가운데 첫 번째인 실천적 사회문제들에 대한 집중하는 압박은 19세기 말엽에 매우 두드러졌던 “사회복음”운동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의 기술이다.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음운동의 신학적 철학적 함의들에 더욱 깊게 관여하였던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오히려 더 보수적이었던 두 그룹들은 그들이 사회적 의식에 동기를 부여받기보다는 교리적 충동에 더 좌우된다.

이들 영향들 가운데 두 번째는 “새로운 견해”로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18세기에 독일 이성주의 운동의 발달은 많은 신학자들로 하여금 순전히 인문주의와 이성주의 방식으로 성경연구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접근으로 고등비평이 발달하게 되었다. 고등비평은 성경본문들의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에 집중된 하등비평에 반대되는 것으로써 성경말씀들의 권위와 확실성에 도전하였다.

“새로운 견해” 접근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크게 다양한 접근으로 귀착되었다. 이 운동에서 자란 자유주의는 많은 그리스도인 사상가들의 관점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좌경적인 신학해석들의 경

2) *Ibid*, p. 403.

향을 보였던 그리스도인 그룹들은 성경말씀의 더 전통적인 해석들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일반규칙으로써, 그들의 신학에서 더 진보적이 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발달에 필요한 하나의 패턴(pattern)으로 보지 않는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영향을 미친 또한 가지는 “해석학”에 접근하는 그들의 방식의 대조로 기술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해석학”이란 단어는 연구하는 방법론적인 접근을 말하고, 성경말씀들의 해석에 접근하는 법칙들과 지침을 기술한다. 앞 강의에서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는 슬로건을 해석하는 차이점들을 주목하였다. 좀더 보수적인 해석학이나 해석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직접적인 명령과 승인된 사도의 모범이나 필요한 추론에 의해서 지지 받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해서는 안 된다고 인도한다. “좀더 폭넓은 견해”는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며, 분명하게 명령되지 아니한 것을 스스로 해석할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한다.

래리 킨(Larry Keene) 박사는 인터뷰에서, 세 그룹들 간의 차이점들을 흥미롭게 설명하였다. 다음의 글은 킨 박사와의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독립 그리스도인들, 즉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룹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환원의 주요 강조들 가운데 한 가지를 심중팔구 집어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교회의 원칙들을 회복한다는 사상이다. 환원운동의 다른 강조는, 역사적으로, 연합운동 즉 환원운동의 연합적인 면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난 20년 간 심중팔구 가장 강조했던 면이다. 그들은 일세기에 고정된 교회에 관한 교리와 개념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만큼의 신학적인 환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³⁾

상술한 논의에서 우리는 환원의 세 주요 그룹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근거 모두를 갖는다. 환원운동 또는 그

3) Keene.

리스도의 제자들이 선호하는 스톤-캠벨 운동의 여러 “그룹들”(wings)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우리들의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의 이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들을 합리적으로 연구할 것을 고집해야 한다.

운동의 진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간의 분열이 1906년에 표명되었을 때에, 분열이 생각만큼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았다. 문제 점들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입장에 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실존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안에 분열과 불평의 요소들이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분열이 유약기와 교회들의 계층들 속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필자는 버틀러(Butler) 대학교의 신학대학에 다니는 특권을 누렸는데, 그 시기가 대학교와 신학대학의 제휴 끝 무렵 즉 크리스천 신학대학원의 탄생 이전이었다. 그 당시 필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내에 세 가지 다른 이념적 그룹들의 존재를 느꼈다. 하나는 가끔씩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렀던 한 그룹이 있었고, 또는 악기음악을 사용하는 것 말고는 필자가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서 느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그룹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독립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그룹일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들이 악기음악을 사용하였고, 인디애나폴리스에 설립되었던 연합 크리스천 선교사 공회에 협력했던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그룹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필자가 극단적인 그룹 또는 좌경적인 그룹으로 보았던, 독립 그리스도인 그룹도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회원으로 가입시키지 않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한 그룹이 있었다. 그 세 그룹들이 실제로나 물리적으로 쪼개지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 먼 신학적 거리들이 있었다.

진실로 이 분열이 기술된 대로 실재했었을 지라도, 그래도 분열

마지막 시기에는 다른 차원에서의 연합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지 수년간, 마지막 두 그룹들은 어느 정도의 연합차원에서 함께 일하였다. 세기가 바뀔 즈음에 국제 컨벤션(International Convention)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능을 계속하면서, 여러 개의 하부조직들이 만들어졌다. 킨은 “그 당시 몇 가지 제자들 운동의 진보적인 경향들 때문에, 1927년, 오하이오 주 캔톤(Canton)의 대형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목회자였던 P. H. 웰쉬머(Welshimer)가 신시내티에 있는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와 함께 북미주 크리스천 컨벤션(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조직을 도왔다.”⁴⁾고 말한다.

때문에, 비록 분열이 1906년 악기음악과 선교사 공회에 관련되었던 것처럼 명료하고 분명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기독교 세계를 연합시킬 목적으로 출발했던 환원운동에 또 다른 분열이 생기고 말았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국제 컨벤션에 관해서 좀더 살펴볼 것이다.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는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에서 좌파들(Leftists), 중도파들(Centrists), 우파들(Rightists)이란 세 단어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 가지 그룹들을 구별하였다. 그는 이것들을 각각 그리스도의 제자들, 독립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멀치는 이 세 가지 그룹들을 각각 다른 장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이들 세 그룹에 대한 더 자세한 공부하는 멀치의 책을 통해서 해주기를 독자들에게 권한다.⁵⁾

독립 그리스도인들의 특성과 성장

4) *Ibid*

5) Murch, pp. 293-321.

리로이 가렛트(Leroy Garrett)는 “20세기 전반기에 분리된 환원운동의 한 그룹(fellowship)이 공개적으로 두 번째 분열을 알렸을 때,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출현은 종종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뜻하였다.”⁶⁾고 진술하였다. 이 두 번째 분열이 실제로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1927년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시발점이 될 북미주 크리스천 컨벤션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1950년대에 다양하게 그 연대를 두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 구조를 개혁할 시기였다. 이 시기에 많은 법적 소송들이 교회당 건물들의 소유권문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상당수가 그들의 건물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환원운동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정확한 때가 모호한 것처럼, 이 분열에 대한 시기 또한 모호하다.

많은 요인들이 이 분열의 주범이었다. 자유주의 신학, “개방 회원제”의 시행, 국제 컨벤션의 방향전환, 에큐메니즘(Ecumenism)에로의 경향은 확실하게 몇 가지 더 선동적인 이유들이었다. 자유신학은 많은 대학들과 교회들의 강단들에 슬며시 숨어들었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보수적인 신앙을 위협하였다. 개방 회원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들에서 많이 시행되었다. 독립 그리스도인들은 침례 받지 아니한 회원제에 동의할 수 없었고, 침례는 반드시 신자의 침수세례를 의미하였다. 국제 컨벤션은 친교와 격려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점점 더 정책결정의 조직이 되어 갔다. 결국 1950년에 특별히 넓게 퍼지는 에큐메니즘을 지향한 강한 움직임이 있었고, 믿음에 대한 동기는 약한 채로 두고, 연합을 위한 연합 차원에서 다양한 교파들과 연대하였다. 이들 경향들은 매우 위험한 것들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분리되게 하였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에

6) Garrett, p. 615.

속한 더 진보적인 형제들보다는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더욱 긴밀하게 관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멀치(Murch)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교리적 특징들의 몇 가지들을 기술한다.

그들은 거룩한 성경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유일하고 충분한 계시로써 수용한다. 그들은 교회를 위한 근본적인 패턴이 신약성경에 계시되어졌고, 그 패턴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모든 신자들의 의무라고 믿는다. 분열된 기독교 세계의 한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오직 그리스도인들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Christians only, but not the only Christians)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⁷⁾

혹자는 상기한 원칙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이들 믿음들의 진술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차이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나타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진술한대로, 해석학의 한 문제로 남아있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혹은, 멀치(Murch)가 그들을 말할 때 쓰기를 좋아하는, 중도파들은 성장해왔고, 미국 기독교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멀치는 기술한다.

.... 북미주 크리스천 컨벤션은 지속적으로 전국적 수준의 친교를 위한 주요 포럼(forum)이 되고 있다. 그것의 성격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교단의 공식적 기관이 아니며, 전국 교회들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매년 열리는 그 모임들은 매년 새로운 존속 위원회들에서 계획된다.⁸⁾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대략 100백만 성도에 5천 개 교회 정도가 된다.

7) Murch, p. 293.

8) *Ibid*, p. 307.

조직들과 교육

그리스도의 교회들처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어떤 거대조직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개 교회별로 운영된다. 개 교회들의 조직은 전형적으로 장로들과 집사들에 의해서 관리된다. 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어느 특정 교회, 즉 보통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크기에 비해 독립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장로들을 갖는다. 예를 들면, 200명 규모의 보통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2-3명의 장로들을 갖는 반면, 만약 동일 규모의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면, 십중팔구 4-5명의 장로들을 가질 것이다. 그런가하면, 동일 규모의 제자들의 교회는 8-10명의 장로들을 갖는다.⁹⁾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섬기는 장로들은 모두 남성들뿐이지만, 제자들의 교회들을 섬기는 장로들 가운데는 대략 25퍼센트가 여성이다.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보통 한 여름에 개최되는 북미주 크리스천 컨벤션이라 불리는 기구를 갖고 있다. 이 기구는 정책을 결정하는 단체가 아니라, 앞서 멀치의 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친교를 위한 포럼”형식으로 섬기는 조직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출판사들보다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출판사들의 수가 아마 더 적은 것 같다. 그러나 어느 그룹에도 교회들이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출판사들은 없고, 오히려 개인이나 법인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출판사들 가운데는 두 곳이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같다. 한 곳은 미주리 주 조플린(Joplin)에 있는 칼리지 출판사(College Press)이고, 다른 한 곳은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Cincinnati)에 있는 스탠다드 출판사(Standard

9) Keene.

Publishing Co.)이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교육 철학은 환원운동의 다른 두 그룹들의 것과는 아주 다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우리가 앞 강의에서 살펴본 대로, 아주 많은 일반대학들(liberal arts colleges)을 세웠다. 다음 강의에서 공부하게 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독립 그리스도인들은 밀리건 대학(Milligan College)과 아마 몇몇 다른 대학들 이외에는 일반대학들을 결코 세우지 않았다. 최근 수년 동안에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다른 보수적인 배경들을 가진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몇 개의 대학원대학들이 세워졌다. 그들이 세운 대부분의 학교들은 성서대학들(Bible Colleges)이었다. 멀치는 지난 세기에 독립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30개 이상의 성서대학들과 성서대학원대학들(Bible Seminaries)을 소개하고 있다.¹⁰⁾

독립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못지않게 기독교 정기간행물들의 출판이 풍성하였다. 독립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두 개의 간행물은 신시내티에서 발행되는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와 『환원 헤럴드』(*Restoration Herald*)로 불리는 또 다른 간행물이다. 미주리 주 조플린(Joplin)에 있는 칼리지 출판사에 의해서 발행되는 『한 몸』(*One Body*)은 최근 수년 동안에 나타났다. 다른 간행물들이 분명히 더 있지만, 이 간행물들이 가장 널리 공급되는 것들이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말씀을 교리를 위한 유일한 원천으로 삼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더 보수적인 그들의 형제들이 하는 것처럼, “필요한 추론”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승인된 사도의 모범”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보수적인 해석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

10) Murch, pp. 295-298.

이 강의에서 우리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주요 특성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유사한 곳이나 차이가 나는 다른 많은 장소들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였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비슷해 지려는 것보다 더 비슷해지려는 경향을 갖는다.

환원운동의 이 "그룹"(wing)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읽고 연구할 자료들은 많다. 각주에 소개된 자료들은 물론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려는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책들도 아주 많이 있다.

토의 주제들

1. 개리슨(Garrison)과 드그루트(DeGroot)가 언급한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를 분리시키려한 두 가지 철학적 차이점들을 논의하십시오.
2. 멀치가 사용한 "좌파들"(Leftists), "중도파들"(Centrists), "우파들"(Rightists)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3. 신학접근방식의 "새로운 견해"를 논의하십시오.
4.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분리시키려한 성경 해석의 "해석학적"문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5. "중도파들"(Centrists)과 "좌파들"(Leftists)간의 몇 가지 차이점들을 논의하십시오.
6. 북미주 크리스천 컨벤션은 무엇이며,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제12강

그리스도의 제자들

Disciples of Christ

앞의 두 강의들에서, 20세기 초기이후의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역사와 특징들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 강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가 우파들(Rightists), 중도파들(Centrists), 좌파들(Leftists)로 언급한, 그리스도의 교회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19-20세기에 번영했던 환원운동에서 자란 세 가지 주요 그룹들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환원운동”으로부터 그들의 출발을 일관되게 말한다. 다른 한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스톤-캠벨 운동”이란 말을 선호한다. 로렌스 킨(Lawrence Keene) 박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른 두 그룹들이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의 원리로써 “환원”의 개념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세기에 존재했던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반드시 환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의 연합운동으로 그들의 운동을 보려는데 훨씬 더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다른 견해를 취한다.¹⁾

철학적 관점

앞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17세기는 인문주의와 이성주의가 유럽신학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독일 학교들에서 “고등비평”으로 알려진

1) Keene.

성경연구방식이 발달하였는데, 유럽은 물론 미국 모두에서 기독교 학계에 깊은 영향을 갖게 되었다. 18세기에 유럽에서 번성한 운동이 19-20세기에는 미국에서 성장하였다.

“고등비평”은 성경말씀의 확실성과 신뢰성에 도전했던 성경연구방식이었다. 다른 한편, “하등비평”은 성경말씀의 원 본문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평하는 학자들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시도였다. 그러므로 하등비평은 가능한 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원문의 발전으로 귀착되었고, 고등비평은 성경말씀의 저자와 정확성과 신뢰성을 종종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환원운동이나 스톤-캠벨 운동과 연관된 대부분의 대학들과 대학교들은 이성주의 운동의 영향아래 놓이게 되었고, 종종 “현대신학”(modernism)으로 언급된 영향력은 학교들에 슬며시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써 이들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나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손을 잡게 되었다. 매우 영향력이 컸던 몇몇 학교들로는 베다니(Bethany) 대학, 버틀러(Butler) 대학교, 유레카(Eureka) 대학, 드레이크(Drake) 대학교, 필립스(Phillips) 대학교, 그리고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들이다. 이 모든 대학들과 다른 대학들도 이후 좌파들인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연관을 맺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진보주의”대 “보수주의”에 대한 논쟁, 특히 이 고등비평의 분야에서의 논쟁은 일촉즉발의 이슈가 되었다. 켄터키 주 렉싱턴의 성경대학(College of the Bible)의 J. W. 맥가비(McGarvey)는 보수주의를 지키는 챔피언이 되었다. 그는 성경말씀의 영감성과 신뢰성을 지킨 많은 글들과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고등비평의 진보신학을 공격하였고, 수많은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해 흐름을 저지시켰다.

성경말씀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앞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리슨(Garrison)과 드그루트(DeGroot)가 성경말씀에의 “새로운 견해”로 언급했던 것의 일부분이다. 이 “새로운 견해”는 스톤-캠벨 운동 내의 다양한 개인들과 그룹들에 의해서 수용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보이지 않는 썩기가 환원운동 내에서 분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스

도의 교회들이 환원운동의 다른 그룹들에서 분리된 것이 환원운동 내에서 생긴 최초의 보이는 분열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했던 다른 문제들은 흥취한 머리를 키울 준비를 갖춘 잠재적 거인으로서 누워있었다.

거지는 분열

우리가 보았듯이, 1906년은 최초로 주요 분리가 일어난 해를 표시한다. 이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19세기에 시작된 진보주의의 썩기가 이미 시작된 틈을 더 벌려놓기 시작하였다. 이 책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시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에 아주 오랫동안 신실하게 남아있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한 세대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만다.

“중도파들”과 “좌파들” 사이에 차이점들의 간격이 커지는 이 시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커지는 분열을 메워보려고 하였다. 국제 컨벤션은 20세기 초경에 시작되었다. 처음에 그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친교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 컨벤션의 성격과 역할은 변하기 시작하였다. 하부기관들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컨벤션은 점점 정책을 결정하는 단체로 커지고 말았다. 킨은 다음과 같이 부연하였다.

... 그 당시 제자들의 운동의 진보주의적인 (그들의 관점에서) 경향들 때문에, 1927년, 오하이오 주 캔톤(Canton)의 대형 그리스도인 교회의 목회자였던 P. H. 웰쉬머(Welshimer)가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있는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와 함께,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별도의 매년 열리는 집회인, 북미주 크리스천 컨벤션(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의 조직을 도왔다.²⁾

따라서 모든 실천적 목적들을 위해서 또 다른 분열이 환원운동 내에서 발전하였다. 분열시기를 1950년대로 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

2) *Ibid*

시기는 마음이 불편해서 제자들의 운동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교회들을 위한 실제적인 주소록이 편찬되었을 때였다. 이때는 또 제자들이 교회들의 구조를 개혁하는데 관심을 기울리던 시기였으며, 많은 교회들이 환원운동의 이 두 분파들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소속할 것을 요구받던 시기였다. 또 많은 법적 소송들이 1950년대에 교회당 건물들의 지배권을 얻거나 건물들의 법적 통제를 유지할 법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되었다. 따라서 “중도파들”이 “좌파들”로부터 실제적인 분리를 표명하거나 공고히 한 시기으로써 1927년이나 1950년대 중의 한 가지나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기 위한 합법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열에는 언제나 일정기간동안 그것이 발전되는 과정들이 실제하기 마련이어서 특정한 날짜를 언제나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

운동의 진보

1906년의 분열이후 처음 25년 또는 그 이상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는 “좌파들”의 성장은 독립 그리스도인들의 것과 결합되어있었다. 왜냐하면, 명백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분열이후에도 양 그룹들과 어떤 공식적인 관계나 또는 어느 정도의 친교를 유지하려했던 교회들이 양 그룹 모두에 있었다.

제자들의 성장패턴은, 킨(Keene)의 연구에 의하면,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것에 비슷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것에 더 비슷하였다. 그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북부중앙 주(州)들에서 더 강한 반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남부에서 가장 강하다”³⁾고 말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1906년의 분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남부에서 더 강하였는데, 아마도 『가스펠 애드보케이트』(*Gospel Advocate*)의 영향력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한편,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은, 십중팔구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의 영향력 때문에, 북부와 북부중앙 지역에서 더

3) *Ibid*

강하였다.

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통계들을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 그룹들 가운데서 가장 큰 대략 150만 명 정도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대략 110만 명 정도인 반면, 독립 그리스도인들이 대략 100만 명 정도이다.”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교인이 감소해왔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지난 4-5년 동안에 대략 40만 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몇 가지 측면들은 분명하게 되었다. “좌파들”이란 멀치의 말은 더 진보적인 신학의 수용이라는 주요 측면들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다. 모든 제자들을 진보주의자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지도층이나 목회자들에서 있어서 진보신학은 아주 분명하다. 제자들은 교인들이 그들 스스로 성경말씀을 해석할 충분한 자유를 허락한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말씀의 무오설, 침례의 우선성, 성경말씀의 기적적인 측면들을 수용하지 않는다. 몇몇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의문시되거나 부정된다.

여성의 역할에 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 킨은 그의 연구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목사들의 10퍼센트 정도가 여성들이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의 대학원대학에서 그 비율은 대학원 대학에 따라서는 30-50퍼센트 정도로 높다.”⁵⁾고 평가한다. 침례의 성격이나 전에 다니던 교파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받아드리는 개방 회원제는 제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시행된다. 성만찬은 제한 없이 주중의 아무 날에나 시행된다. 그러나 다른 두 그룹들은 주의 날, 즉 일요일을 성만찬을 시행할 적절한 시간으로 간주한다. “제자들의 예배는 의식적인 면에서 매우 예전적이며, 감정적인 면에서는 차가운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들은 예외이다. 그들은 훨씬 더 뜨겁고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⁶⁾ 많은 제자들의 교회들 사이에서 목사들은 규

4) *Ibid*

5) *Ibid*

6) *Ibid*

칙적으로 강단에서 예복들을 착용하며, 예배는 감정이나 느낌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조직들과 교육

앞에서 몇 번에 걸쳐 국제 컨벤션과 환원운동에 미친 그것의 충격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조직의 중앙집중화는 스톤-캠벨 운동이나 환원운동에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1849년에 미주 크리스천 선교사 공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가 시작되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대표자를 보냈다. 캠벨은 초대회장으로 뽑혔고, 공회 설립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나중에 그것은 연합 크리스천 선교사 공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가 되었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시에 위치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제 컨벤션은 거의 20세기 초에 시작되었다. 그것이 교회들 개개의 삶에 영향을 준 정책결정을 할 때까지 모든 것은 순조로웠다. 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설교와 교육 학기에 더해, 그것은 지난 20년 간 정책을 결정하는 컨벤션으로 등장하였다. 지금은 그것을 총회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한해 걸러 한 번씩 소집되어, 신학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에 관한 결의안들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이것들은 총대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매 교회는 두 명의 총대들을 참석시킬 권한이 있고, 큰 교회들은 교인수에 비례해서 더 많은 수의 총대들을 참석시킬 수 있다.⁷⁾

이러한 결정들이 교회들을 반드시 속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총대들의 진술된 의견을 가리킨다. 총회에 부가해서, 한해 걸러 한 번씩 모이는 지방회들이 있다. 따라서 매년마다 어떤 형태로든 총회가 열린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통합을 목적으로 회중교회(Congregational)와

7) *Ibid*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와 대화를 해오고 있다. 1950년대 이후 교회연합운동(Ecumenical Movement)은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상기한 두 그룹들 가운데 어느 하나와 정말 통합한다면, 환원운동에의 그들의 정체성은 사라진다는 것이 필자도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제자들은 이미 현재의 환원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현재 동의하는 환원운동의 유일한 주요 개념은 연합의 개념이며, 그들의 연합개념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나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사이에서 견지되고 있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교육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제자들이 강조하는 교육의 두 가지 측면들은,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가 그들의 교인들을 위해서 일반 대학들(liberal arts colleges)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교육 철학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둘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성주의와 현대주의가 학교들의 교육과정에 침투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환원운동의 주요 대학들과 대학교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다. 앞부분에서 몇 개의 주요 학교들을 열거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독서하는 사람들이다. 킨 박사의 연구는 그들의 독서가 신앙적이기보다는 세속적인 주제들을 더 많이 따라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서적들을 구독하는가를 물었다.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다른 두 그룹들이 하는 것보다 두 배나 많이 구독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다른 두 그룹들은 비신앙 서적들을 더 많이 구독하였다. 물론 구독과 독서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은 더 많은 신앙 신앙자료들을 읽는 경향이 있다.⁸⁾

제10장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비록 그것들이 조직상으로 교회들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신앙지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8) *Ibid*

지적하였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매우 많은 수의 신앙지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좌파들” 사이에서 발행되는 주요 저널에는 『제자들』(*The Disciples*)이 있다. 『제자들』은 크리스천 출판위원회(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가 세인트루이스에서 발행하는 완전 칼라판 전문 월간지이다.

오늘날의 많은 좀더 예전적인 교회들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매우 선교지향적이지 않다. 그들 가운데는 선교위원회들이 있다. 그렇지만, 선교의 강조는 그들의 좀더 보수적인 환원운동 그룹들에서 갖고 있는 것만큼 열정적이지 않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선교사역을, 연합 크리스천 선교사 공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로 일찍이 알려진, 선교위원회(Board of Missions)를 통해서 행한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환원”에 헌신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이상 환원운동을 말하지 않고,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을 “스톤-캠벨 운동”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제자들 내에도 여전히 환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이 많은 상당수의 “평신도들”이 환원개념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직감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교회의 지성을 갖춘 지도자들은 그것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연합에 헌신한다. 그리고 지난 10-15년 간 그들이 중요하게 추진했던 것은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연합 또는 통합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를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대체로 그들과 동일한 미국 내의 교단으로 본다.9)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다른 편에서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 이들 첨예한 다른 철학적 차이점들 때문에, 필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 자신들과 환원운동으로 언급해왔던 나머지 그룹들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지속적으로

9) *Ibid*

넓혀갈 것이라고 믿는다.

결론

이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환원운동의 가장 진보적인 경향들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독일 진보신학의 유입은 제자들의 교회 학자들에 의해서 폭넓게 수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진보적인 신학을 발전시켰고, 환원운동의 “좌파들”로 언급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제자들은 신약성경기독교에로의 복귀나 환원보다는 연합이나 통합 쪽을 더 크게 선호하였다. 제자들과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통합 운동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또는 이루어지는 때에는 스톤-캠벨 운동으로부터 발생한 다른 그룹들과의 정체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토의 문제들

1. 무엇이 환원운동을 향한 제자들 운동 내의 지도자들의 지배적인 태도인가?
2. 총체적으로 환원운동과 개별적으로 제자들에게 끼치는 국제 컨벤션의 중요성과 함의들을 논의하시오.
3. 무엇인 교육을 향한 제자들 운동의 지배적인 태도인가?
4. 어떤 요인들이 제자들과 독립 그리스도인 교회들 간에 결정적인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5. 그리스도의 교회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교하고 대조하시오.

제13강

우리는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Where Do We Go from Here

이 강의를 끝으로 교회를 통과하는 우리의 여행을 마치려한다. 이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과거를 복습하면서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강의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간 다루었던 일련의 강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 강의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는가?”의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한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말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뒤돌아볼 때, 아마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일세기 교회의 시작은 로마제국 내에서 성장하여 강력한 세력이 되었다. 교회는 박해의 불길과 교회내부의 이단들의 성행과 결국 가톨릭교회의 성직위계제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가톨릭교의 발달. 이 발달 시기는 어떻게 교회가, 4세기까지, 박해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인 4세기 초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칙령이 반포되었는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교회의 정치유착들의 시작이었고, 나중에는 신성로마가톨릭교회(Holy Roman Catholic Church)로 발전되었고, 중세기의 상당한

세속적 정치적 권력들을 지배할 수 있었다.

교회는 중세기에 대단한 권세를 누렸다. 중세기 말까지 교리의 발달이 진척되었다. 배교가 가톨릭교회로 귀착되었고, 11세기에는 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가 결국 분리되고 말았다. 이 부분에서는 신약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에서 떠난 배교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고, 시대사상과 혼합하는 교리들이 발전되었는가를 몇 가지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동서방교회들의 분리는 기독교의 주요 분열이었으며, 이후 이들 기독교 “교단들”(wings)은 결코 통합되지 않았다. 가톨릭교회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권좌를 두고 계속 지배하였고, 동방정교회는 중앙본부들을 갖지 아니한 개별 교단으로 남아있었다. 오히려 그리스정교회, 시리아정교회, 러시아정교회, 기타 많은 정교회들이 국가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 간의 교리적 신념들은 동일하다. 다만 언어와 문화에서 다를 뿐이다.

종교개혁운동. 르네상스운동이후 교회 계층들 내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교회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살펴본 대로, “보상의”(work righteousness)가 발달되었고, 존 테젤(John Tetzel)이 독일에 들어가 그곳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절정에 도달하였다. 마르틴 루터는 보상의에 대항하였고, 비텐부르크(Wittenburg) 성당출입문에 토론을 위한 그의 명제들을 공고하였으며, 토론을 요청하면서 교회에 도전하였다.

개신교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운동이었고, 세 가지 주요 원칙들이 모든 종교개혁의 그룹들에 흐르고 있었다. 그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salvation by faith), 성경말씀의 전적-충분성(all-sufficiency of the scriptures),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사제직(priesthood of all believers)이다. 이들 원칙들은 루터(Luther), 츠빙글리(Zwingli), 칼뱅(Calvin), 사보나롤라(Savonarola),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선포되었다. 비록 종교개혁이 가톨릭교회와 분리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분리로 귀착되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가르침들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이단으로 단죄되었고, 가톨릭교회로부터 출교 당하였다.

개신교 종교개혁은 세 가지로 크게 나뉘었는데, 그것들은 독일 종교개혁, 스위스 종교개혁, 그리고 영국 종교개혁이다. 독일 종교개혁에서 주도적인 인물은 물론 마르틴 루터였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합류하였지만, 루터가 그 운동에서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었음이 틀림없다. 스위스 종교개혁은 처음 존 칼뱅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스위스 종교개혁에 합류하였다. 영국 종교개혁은 교리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헨리 8세 영국 왕이 이혼을 정당화하고, 재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바티칸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헨리 8세는 영국 주교들의 도움을 받아 영국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다.

신세계는 유럽의 교파적인 경향들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정착자들이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자신들의 종교적 배경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것들은 신세계의 자유와 문화와 혼합하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서 분열을 지속시키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환원을 향한 노력들. 18세기 말까지, 쪼개진 기독교계에 불만스런 감정이 지리적으로 나누어진 미국의 많은 지역들, 즉 북서부지방, 남부지방, 중서부지방, 및 기타 지방들에서 일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초까지 그 운동이 성장하고 있었다.

이 기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토마스 와 알렉산더 캠벨 부자와 발톤 왈렌 스톤과 같은 이들이었다. 다른 것들과 더불어 신약성경으로 돌아가 기독교에 연합을 가져오려는 염원으로 신명이 난 사람들의 중요한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전반은 성장과 발전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성경말씀을 열렬히 연구하던 시기로 특징지어졌다. 한 슬로건이 만들어졌고,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환원운동을 연합시키기도 하고 갈라놓기도 하였다. 이 슬로건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는 것이었다. 이 19세기 전반기 동안에는 환원운동 전반에 걸쳐 연합이 이루어졌다.

세기 초까지, 많은 문제들이 "환원운동"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일기 시작하였다. 북부와 남부간의 긴장들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이것들은 종종 교회에 영향을 주었다. 철학적 갈등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앞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진보신학은 미국에 숨어들었고, 지금은 스톤-캠벨 운동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비록 19세기 후반기에 분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념적인 분열은 대단히 컸다.

20세기 초까지 분열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악기음악과 선교사 공회와의 연계가 환원운동의 큰 그룹에 불만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1906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악기음악과 선교사 공회에 반대하여 환원운동의 다른 그룹들과 분리하였다. 마지막 세 강의들에서 우리는 이 부분의 문제들을 추적하였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일들이 발전되었다. 환원운동은 이제 세 가지 주요 그룹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연합시키려는 시도로써 시작되었던 운동이 그룹을 찢어놓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질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며, 몇 가지 제안들을 하고자 한다. 이 제안들은 조심스럽게 제시되었고,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들과 다른 가능성들에 대한 연구는 아마 우리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이 책 마지막 페이지들에서 환원운동에서 우리 모두, 즉 그리스도의 교회들,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생각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해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필자의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답을 궁구(窮究)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1) 우리는 환원의 뿌리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2)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복귀해야 한

다. (3) 우리는 성경말씀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4) 우리는 대화의 채널들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1. 우리는 환원의 뿌리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환원은 작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필자는 그것이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는, 비록 그것이 바람직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신약성경 기독교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는 대학원 시절에 졸업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한 분으로부터 “신약성경에 교회를 위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질문하신 분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예”라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 신약성경에 한 패턴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하며, 우리의 운동에 그것을 복귀시켜야 한다. 신약성경기독교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의 일단을 인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다시 말하지만, 필자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것이 작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다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세대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 (God’s mission)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확실히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할 누군가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는 한 가지 일, 즉 하나님의 방법은 꺾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실 것이란 것을 확신할 수 있다.

2.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복귀해야 한다. 신약성경으로 복귀한다는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결정할 때, 성경말씀의 중요성을 재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는 쉽고, 우리들의 신앙원천을 살피는 것은 잊기가 쉽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신약성경에 뿌려진 씨가 그것을 따랐던 자들의 삶에서 일정한 특성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오늘날 동일한 씨를 심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동일한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사람들이 이집트의 투트(Tut) 왕의 무덤을 발견했을 때, 여전히 “살아” 있고, 싹을 띄울 수 있는 밀알을 몇 개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자. 누군가가 그 씨들을 주어서 심는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종류의 밀을 그 씨들이 생산하겠는가? 오늘날의 농장주들이 생산하는 최근 품종의 밀들을 일부 생산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투트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씨앗들이 동일품종의 밀을 생산하겠는가? 대답은 분명하지 않는가? 동일한 원리가 “왕국의 씨”(Seed of the Kingdom)의 경우에서도 적용된다. 만약 그 씨가 오늘날 심겨진다면, 그것은 일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품종”의 그리스도인들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지속적으로 매 세대가 신약성경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3. 우리의 해석학을 재검토해야 한다. 앞 강의들에서 “해석학”이란 단어를 언급하였다. 웹스터 사전은 “해석학”을 “해석방법의 원리들의 연구”로 정의한다. 아마 우리는 성경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의 원리들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분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원운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 규칙들 또는 사용해왔던 세 가지 해석의 원리들에 특별히 주의를 집중시켜왔다. 우리는 이것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환원운동역사에서 다음의 세 가지 방법들,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승인된 사도의 모범, 그리고 필요한 추론이 제시되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Direct Command of God). 이 해석의 원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아무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심으로 할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한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행 2:38)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다. 이것이 오순절 날 구원을 얻고자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놓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것들은 명령들이다. 환원운동에서 우리들 모두는 성경말씀의 이 해석의 원리에 아무런 문제를 갖지 않는다.

승인된 사도의 모범(Approved apostolic example). 사도들이 남겨놓았고, 우리들을 위한 모범들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신약성경에 있다. 이것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이다. 이 성구는 우리들에게 초기 제자들이 주의 만찬 또는 성만찬을 지켰을 때의 모범을 보여준다. 신약성경에는 일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지킨 때를 명확하게 밝히는 어떠한 직접적인 명령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인된 사도의 모범에 의존해야한다. 또 다른 예는 세족에 관한 것이다. 초기 제자들은 그들이 세족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승인된 사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환원운동 내의 우리 모두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해석학적 문제들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모범이 승인된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구를 계속해야할 종류의 일이다.

필요한 추론(Necessary Inference). 우리는 모두 추론이 무엇인지를 안다. 우리는 결론이 무엇일지를 메시지의 두 개나 그 이상의 요소들로부터 추론한다. 환원운동 내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몇 가지 추론들이 있는가하면, 추론들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던 한 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물에서 나오셨다고 우리는 읽는다. 만약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물로 내려가셨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하나의 필요한 추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의 원리는 환원운동의 보다 더 보수적인 그룹들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고, 모든 이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해석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추론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를 이유로 들어 반대 입장을 설명한다.

따라서 독자는 우리가 해석학의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를 이해하는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할 때, 한 형제인 우리를 갈라놓는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환원운동의 초기의 슬로건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는 것이었다. 이 슬로건은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환원운동의 보수적인 두 그룹들 사이에서조차도 이 슬로건의 의미에 관한 견해를 달리한다. 슬로건의 앞부분에는 일치한다. 그러나 뒷부분,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의 해석에서는 견해의 차가 훨씬 크다. 그러나 앞 강의들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 슬로건의 의미에 새롭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단순히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오늘날과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외친 초기 지도자들에게 잘못이 있는가? 이것은 확실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4. 우리는 대화의 채널들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지난 30-40년 동안, 서로간의 확신들을 검토하고, 간격을 좁히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왔다. 초기 시도들 가운데 한 가지는 위티와 멀치 운동(Witty-Murch Movement)으로 언급되어져 왔다. 1940년대 초에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Detroit)의 클라우드 위티(Claude F. Witty)와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의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가 두 그룹들 간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2-3년 간, 그들은 『연합 계간지』(The Unity Quarterly)를 출판하였다. 마스터헤드(masthead)에 밝힌 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The unity of the people of God on the Word of God)을 위한 것이었다. 위티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소속이었고, 멀치는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소속이었다. 비록 유익한 일들이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게 뒤따랐다. 그 운동은 그것의 지도자들이 바랐던 성공을 얻지 못했다.

과거 수년 동안 전체 일곱 번에 걸쳐 연합운동 집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독립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두 형제지간에 다양한 장소들에서 소집되었다. 비록 필자는 이들 세미나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도 참석하는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 모두로부터 그 모임들에 관해서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읍서버들 이외에 이들 모임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들 모임들을 검토하는 것이 이 글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분열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대화의 채널들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들과 확신들을 의식하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계획들과 예상들

필자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관해서 감지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새롭게 이루어진 대화들이, 특히 우리들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 있었을지도 모를 얼마간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개선해왔다는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다. 그것들은 또한 우리들에게 각자가 갖고 있는 신념들과 감정들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켰다.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운동이다.

필자는 두 그룹들, 즉 독립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것처럼 완전하게 통합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더 더욱 아니다. 아마 그 두 그룹 사이에 더 큰 사랑의 감정과 계속된 연구와 검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들이 가까운 장래에 연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결론

이제 결론으로 이 전체연구가 기초했던 원리들의 한 가지, 즉 하

나님의 백성은 장기간동안 신실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독자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나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 번 보았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겠다는 결단을 기억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본질이다. 만일에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믿음과 실천을 위한 규범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필자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위해서 “시련을 불태웠던” 자들을 위해 큰 감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연구에 접근하도록 촉구하기를 원한다. 그들의 지도력과 그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더듬고 있을 것이다. 이제 공부를 끝내면서, 만일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지배적인 관심을 기꺼이 바치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대단히 큰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당신을 천거한다(엡 3:20-21 비교). 영원은 너무 길고, 천국은 너무 값진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토의 문제들

1. 무엇이 기독교에서의 종교개혁운동의 발달에 대한 주된 이유들이었는가?
2. 가까운 과거에 이루어졌던 “환원”시도들의 몇 가지를 논의하십시오. 기독교 역사의 다른 시기들에 교회를 회복하려는 시도들의 몇 가지를 논의하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3. 무엇이 환원운동 내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여 질 수 있

고 또 해야 한다고 믿는가? 연합이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가?

4.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원하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는 진술의 함의들을 논의하시오.

역자후기

Translator's Postscript

본서는 캘리포니아 주 말리부(Malibu)에 소재한 페퍼다인 대학교 (Pepperdine University)에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모리스 워맥(Morris Womack)이 저술하고 칼리지 프레스에서 출판한 한 학기 강의를 위한 책이다. 이 책은 1988년에 출판된 이후 1992년 한 차례 더 인쇄 되었다.

본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무)의 전도자인 모리스 워맥이 저술하고 칼리지 출판사(유)에서 펴낸 유무약기 합작품이란 점과 평신도 성인들이 수요일 예배 때나 주일학교성경클래스에서 교재로 쓸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미국의 환원 운동사에 관한 저술들은 2004년에 출판된 『스톤캠벨운동 백과사전』(*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¹⁾을 비롯해서 역자가 번역한 “스톤캠벨운동의 300년사: 조사와 분석”(Stone-Campbell History Over Three Centuries: A Survey and Analysis)²⁾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양이 실로 방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자가 본서를 택하여 번역한 이유는 평신도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간결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본서가 우리 실정에 알맞을 것 같아서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의 유산과 전통을 이해하고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1) Douglas A. Foster, Paul M. Blowers, Anthony L. Dunnivant and D. Newell Williams, ed.,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Grand Rapids, Michigan/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2) 조동호 편저, 『그리스도의 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08)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http://kccs.info>).

책 속에 인용된 성구는 거의 대부분 『한글개역개정판』임을 밝혀 둔다. 『한글개역판』 성구로써 완료했던 몇 년 전 번역을 이번에 『한글개역개정판』으로 수정하였다. 아울러 9년 전에 급히 번역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에 올린 내용을 다시 읽고 수정 보완하였다는 점도 밝혀 둔다.

2009년 4월 25일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에서 조동호